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방안 워크숍

- ▶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13:30~17:00
- ▶ 장 소 : 한국교총회관 외솔홀(2층)
- ▶ 주 최 : 미래기획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 Visio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방안 워크숍

➔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3:30~17:00

➔ 장소: 한국교총회관 외솔홀(2층)

➔ 세부일정

13:30~14:00	참석자 소개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환영인사	윤여권 단장(미래기획위원회)
	미래세대 가치관의 현황	임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00~15:20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방안	
	인생, 행복, 성공	함인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가족	김현주 교수(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직업과 교육	진미석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체 · 시민 의식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15:40~16:30	지정토론	
	토론 1	조아미 교수(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토론 2	김나경 선임연구원(LG경제연구원)
	토론 3	전성민 사무처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토론 4	이상민(서울교육대학교 1학년)
	토론 5	백희진(학익여자고등학교 3학년)
16:30~17: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목 차

- ◇ 미래세대 가치관의 현황 1
임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인생, 행복, 성공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27
함인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 ◇ 가족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39
김현주 교수(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 ◇ 직업과 교육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53
진미석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공동체·시민 의식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73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주제발표 1

미래세대 가치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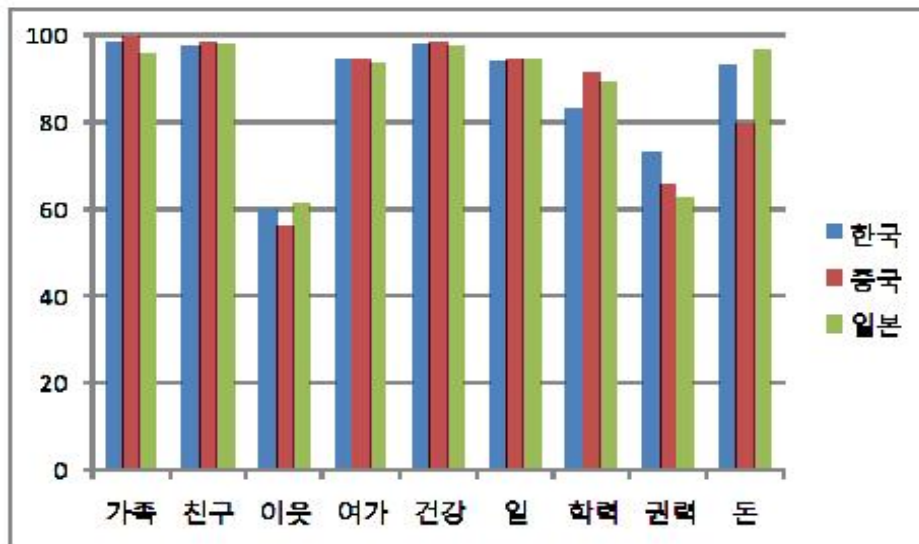
임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래세대 가치관의 현황

1. 인생, 행복, 성공

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 건강, 친구

미래세대는 가족, 건강, 친구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족, 친구, 이웃, 여가, 건강, 일, 학력, 권력, 돈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98.8%의 중고등학생들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건강(98.1%), 친구(97.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94.2%)과 여가(94.6%) 모두에 높은 가치를 균형 있게 부여하고 있었으며, 학력(83.2%)과 권력(73.3%)보다는 돈(93.5%)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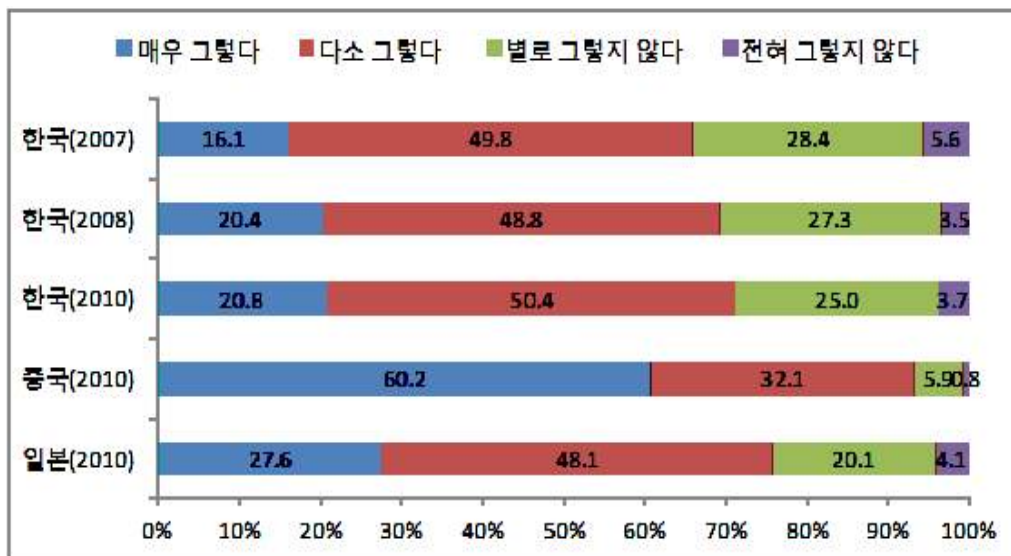


【그림 1】 인생에서 중요한 것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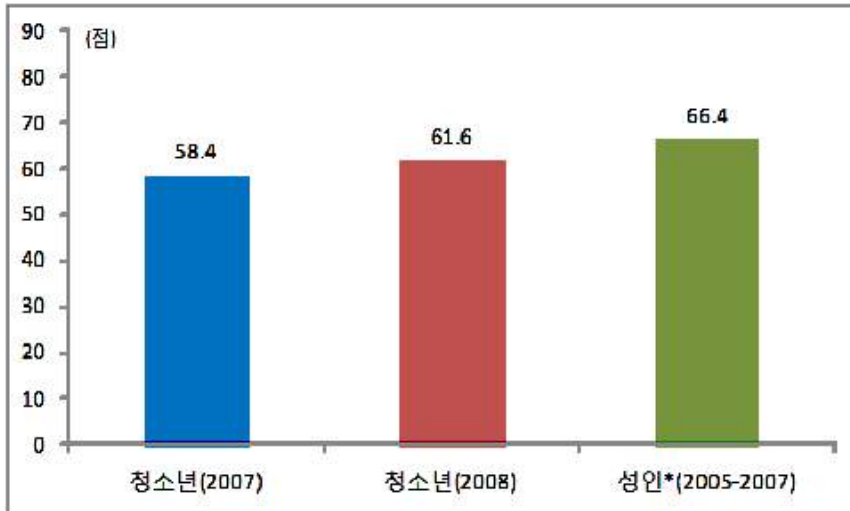
2) 행복감은 낮은 수준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결과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07년 65.9%, 2008년 69.2%, 2010년 71.2%로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중국(92.3%), 일본(75.7%) 청소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는 행복감을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질문하고, 그 응답에 각각 100점, 66점, 33점, 0점의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산출한 후 국가간 행복지수로 활용하고 있다. 2007년, 2008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에 같은 방식으로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58.4점, 61.6점이었다. 세계가치관조사 중 가장 최근의 결과인 2005~2007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은 성인 수준(66.4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욱이 성인의 조사 결과가 37개 조사 대상국 중 28위(세계 평균: 68.8점)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행복감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그림 2】 나는 지금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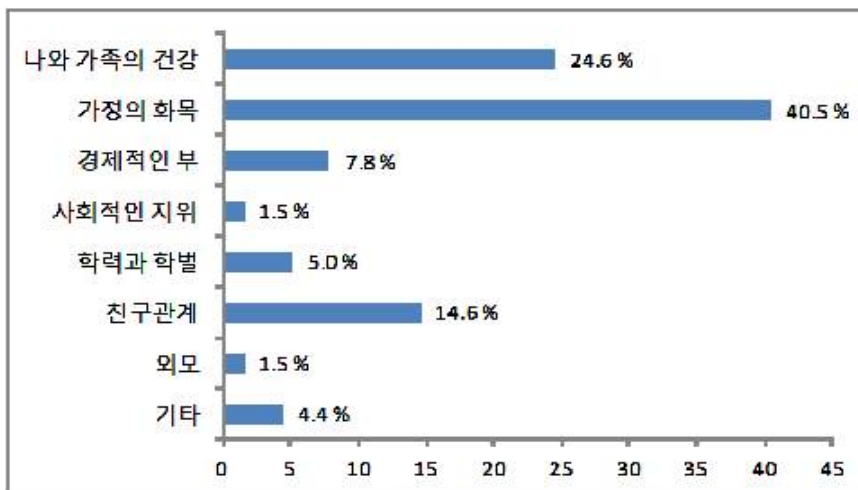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그림 3】 청소년과 성인의 행복감 비교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중고등학생 대상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08),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2011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행복의 요인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의 화목을 꼽았고, 다음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 친구관계를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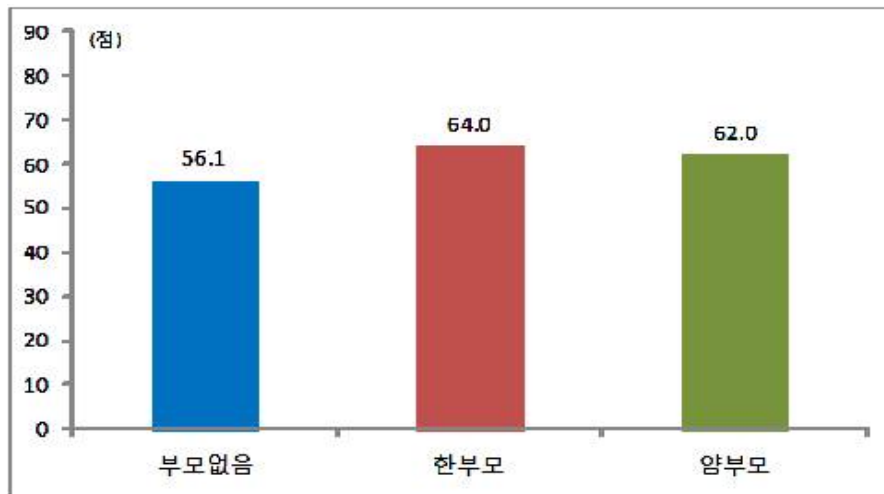


【그림 4】 행복의 중요한 요인

* 자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1), 초4~고3 대상

청소년들은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건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족의 형태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행복감을 양부모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행복감(64.0점)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행복감(62.0점)보다 오히려 높아 양부모 여부는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세대의 가치관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10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청소년은 과반(50.6%)이었다. 이는 성인의 10명 중 9명 이상(91.3%)이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있어야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08)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미래세대는 외형적인 가족의 형태보다는 가정의 화목이나 구성원의 건강을 더욱 중요시하고,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양부모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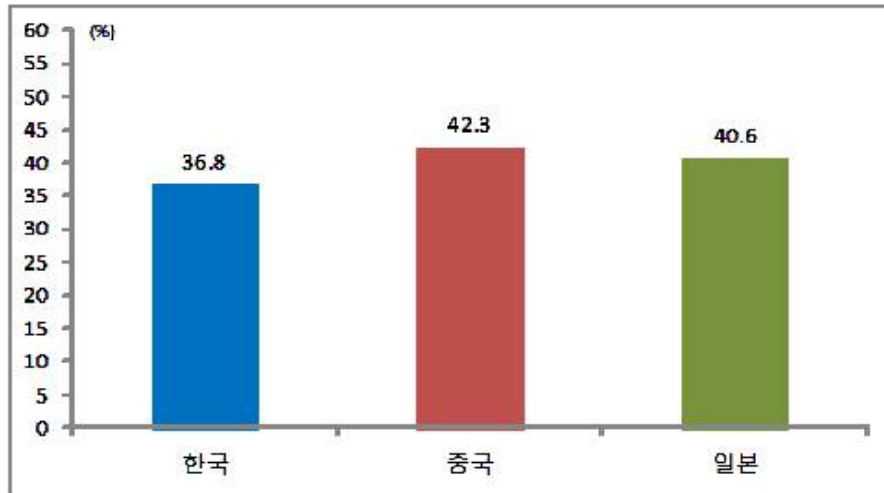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8), 중고등학교 대상

3) 성공 기준 남자는 돈, 여자는 사회적 성공

LG경제연구원의 「2011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에 의하면 20대의 57%는 사회적 지위는 조금 낮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성공으로 보는 경향은 20대 남성(62%)이 여성(51%)보다 높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돈을 성공으로 보는 경향이 20대

남성에서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성공 기준과 관련하여 2010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는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 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긍정 응답률은 중국(42.3%), 일본(40.6%), 한국(36.8%)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이 여성의 사회적 성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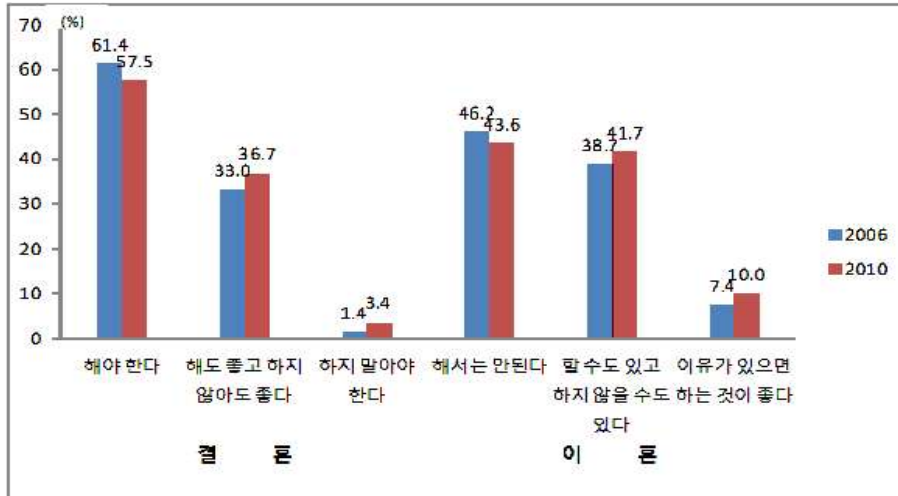
【그림 6】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2. 가족

1) 결혼과 이혼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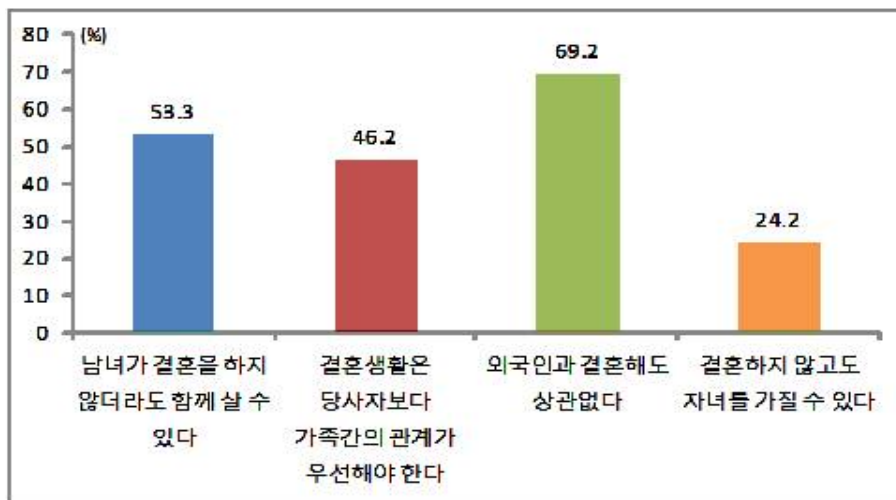
미래세대에게 미혼과 이혼은 더 이상 불편한 상태가 아니다. 결혼과 이혼은 선택사항이며, 이는 이들 세대 가치관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청소년통계」(통계청, 2011)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 중 ‘결혼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중은 2006년 61.4%에서 2010년 57.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을 ‘반대’ 하는 비중은 2010년 43.6%로 2006년(46.2%)에 비해 2.6%p 줄었다.



【그림 7】 결혼·이혼에 대한 견해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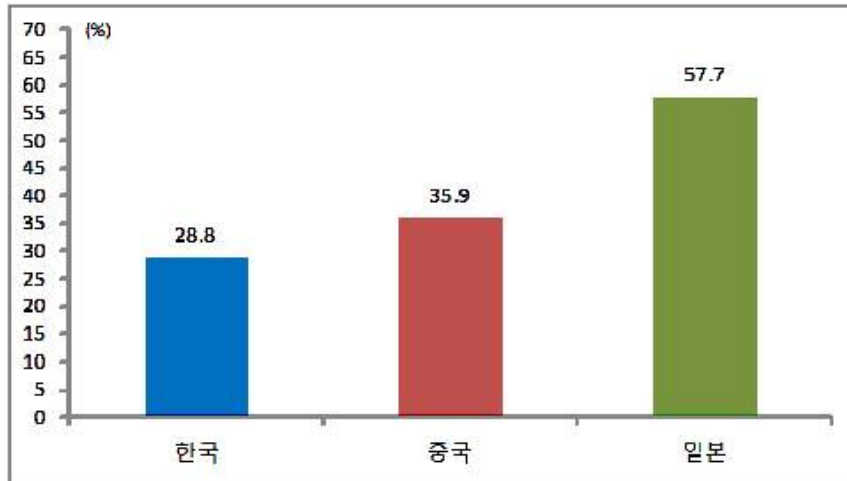
또한 2010년 15~24세 청소년의 53.3%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69.2%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24.2%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남녀의 동거를 금하고 결혼한 여성에게만 출산을 허용하였으나, 과반수의 젊은 세대들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2명 이상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결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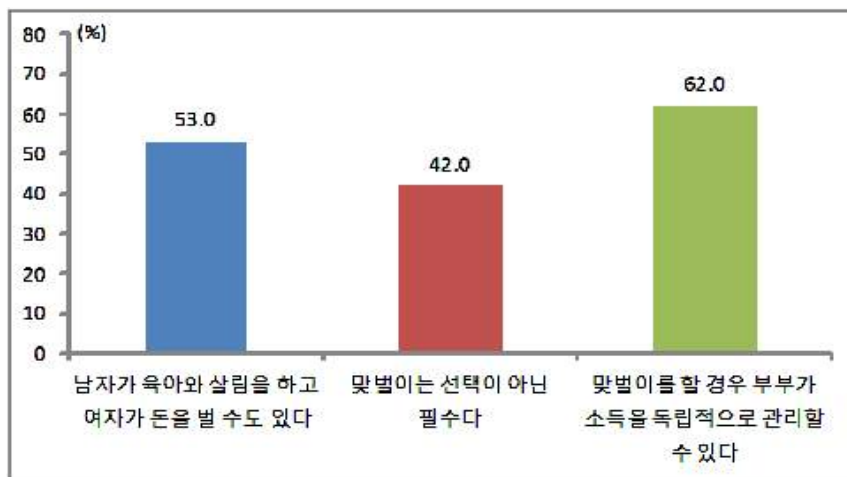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0)

결혼생활에서도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지는 않는다. 2010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라는 의견에 71.2%의 청소년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비동의율보다 높은 결과이다. LG경제연구원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에서도 20대의 53%는 “남자가 육아와 살림을 하고 여자가 돈을 벌 수도 있다” 고 생각하고, 42%가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2%는 “맞벌이를 할 경우 부부가 소득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다.



【그림 9】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그림 10】 가정 내 성역할

* 자료: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2011), 20대 대상

2) 배우자 선택 기준은 성격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성격"을 1순위로, "경제력"을 2순위로 응답하였다. 청소년은 3순위로 "외모/성적매력"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성인은 "자라온 환경"이라고 응답하여, 청소년은 외모를 중시하고 성인은 성장 환경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과 성인의 배우자 선택 기준 비교

(단위 : %)

구분 \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청소년 (2010)	성격 40.7	경제력 20.5	외모/성적매력 18.5	장래성 4.8	학력/지적수준 4.2
청소년 (2008)	성격 39.7	경제력 21.9	외모/성적매력 15.8	장래성 5.7	학력/지적수준 5.0
성인 (2008)	성격 55.0	경제력 17.3	자라온 환경 11.5	장래성 9.9	종교 2.1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중고등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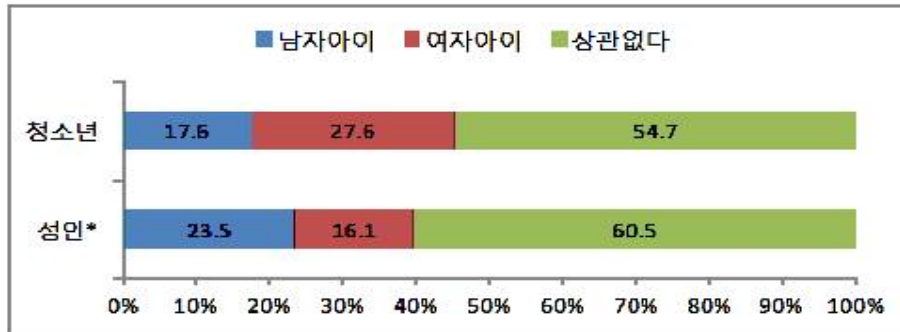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08).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 주: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2개 응답,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1개 응답

3)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 경향은 거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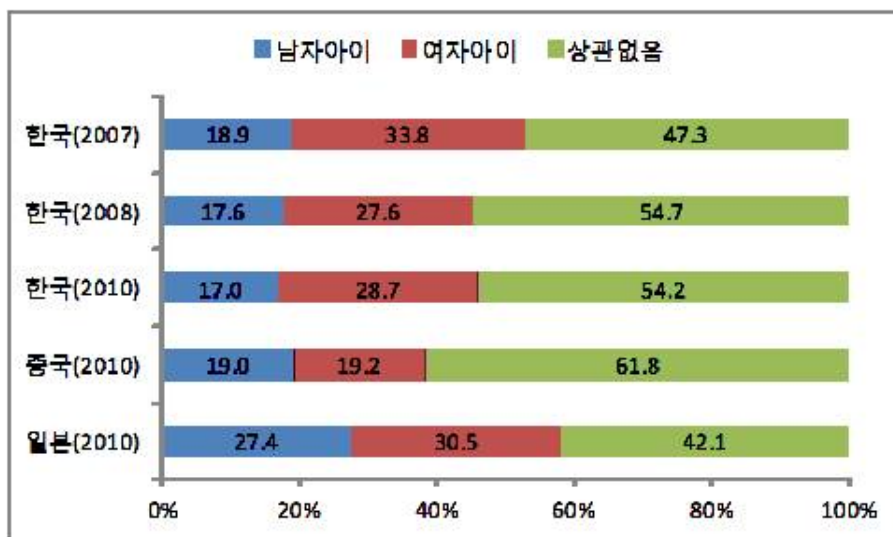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경향이 뚜렷했었다. 남아선호 경향으로 불균형이 심각했던 출생성비¹⁾는 1990년에 116.5였던 것이 2000년에 110.2, 2007년에 106.2로 정상성비(103~107)를 회복하여 2008년 106.4, 2009년 106.4, 2010년 106.7로 2010년까지 정상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를 한 명만 가질 경우 선호하는 성별에 대한 질문한 결과 청소년의 54.7%와 성인의 60.5%가 "상관없다"고 응답해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 경향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청소년은 여자아이(27.6%)를, 성인은 남자아이(23.5%)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여아 100명당 남아 수



【그림 11】 청소년과 성인의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비교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8), 중고등학생 대상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08),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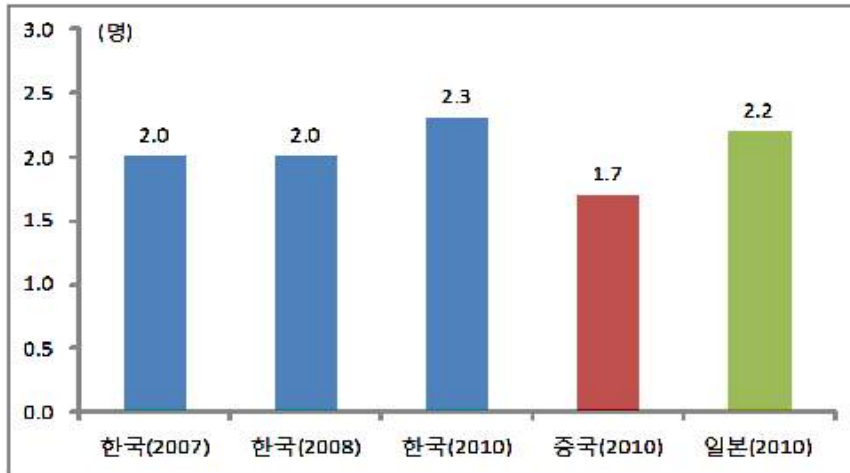


【그림 12】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4) 장래 희망 자녀수는 2.3명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수는 2007년 2.0명, 2008년 2.0명, 2010년 2.3명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의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희망 자녀수와 차이가 존재하므로 육아에 관한 제도 및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13】 희망 자녀수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5) 약화되는 부모 부양 의식

2010년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45.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40.8%)’이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이는 성인의 74.9%가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성별로 보면 남자는 ‘가족(43.0%)’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가족과 정부·사회(48.0%)’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부모 부양 책임자로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69.2%)’와 ‘자식 중 능력 있는 자(13.0%)’가 돌보아야 한다고 주로 생각하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장남’이나 ‘아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여자보다 높았다(통계청, 2011).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기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의 차이와 미래세대 내의 성별 의식 차이는 향후 각 가정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나라의 부양 의식과 비교해도, 18~24세의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나이 든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부양한다”는 부모 부양 의식은 영국(66.0%), 미국(63.5%), 프랑스(50.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내각부, 2009).

표 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소계	장남 (만남노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든 자녀	자식중 능력 있는자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 사회	기타
15~24세	11.3	40.8	100.0	7.2	7.2	3.4	69.2	13.0	45.2	2.7	0.0
남 자	11.7	43.0	100.0	10.9	10.5	0.9	62.2	15.4	42.2	3.0	0.1
여 자	10.8	38.7	100.0	3.1	3.6	6.1	76.9	10.3	48.0	2.4	—
15~19세	11.8	42.0	100.0	7.8	7.0	3.6	69.2	12.4	43.2	2.9	0.1
20~24세	10.6	39.4	100.0	6.3	7.4	3.1	69.4	13.8	47.5	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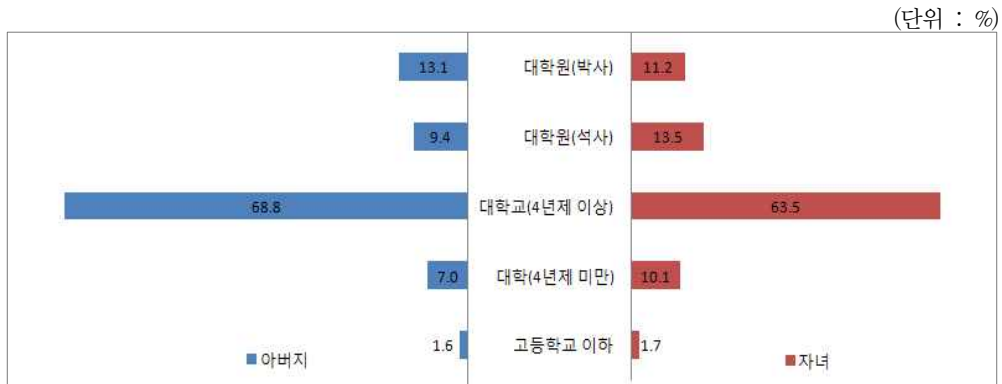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0)

3. 직업과 교육

1) 교육의 목적은 좋은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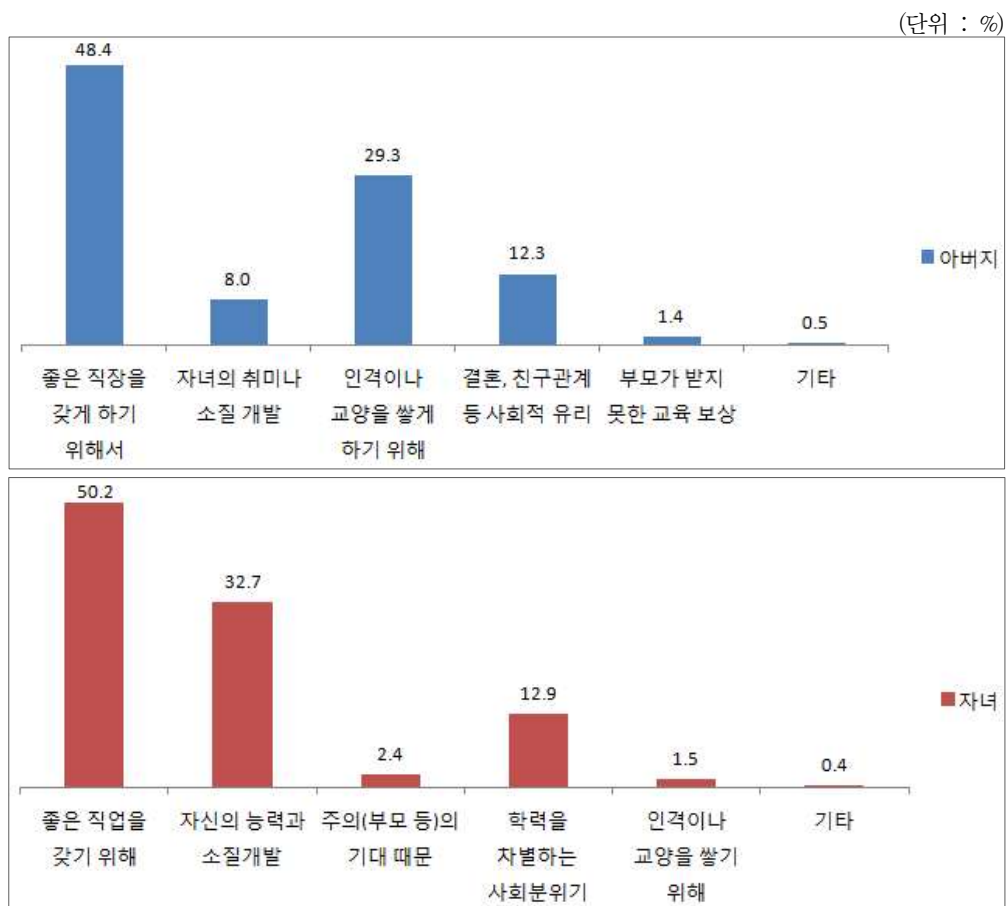
2010년 아버지의 91.3%는 자녀를 ‘4년제 이상 대학’ 까지 교육시키고 싶어 하였고, 자녀 본인도 88.2%가 ‘4년제 이상 대학’ 교육을 희망하였다. 교육에 목적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학 이상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48.4%)’ 과 ‘인격 및 교양(29.3%)’ 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자녀는 ‘좋은 직업(50.2%)’ 과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32.7%)’ 을 위해서 대학진학을 원한다고 응답하여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좋은 직업이 교육의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도 75.2%의 중고등학생이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일본 청소년들의 59.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청년의식조사」에 따르면, 18~24세의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의의에 대해서 한국 청소년은 ‘학력과 자격을 얻기 위해’, 일본 청소년은 ‘친구와의 우정을 쌓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청소년은 ‘일반적·기초적 지식을 익히기 위해’ 라고 응답하였다(일본 내각부, 2009). LG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대학 교육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교육을 기대하였다(김나경, 2011).



【그림 14】 아버지와 자녀의 기대 교육 수준(201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0



【그림 15】 아버지와 자녀의 기대 교육 목적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0

** 주: 대학 이상 교육의 목적

부모와 자녀의 기대 교육 수준 및 목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서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 취업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큼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2) 직업생활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 을 ‘쾌적한 근무환경’ 에서

2009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가치 순위는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 을 ‘쾌적한 근무환경’ 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가지면서’, ‘안정적’ 으로 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직업생활에서의 가치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4.31	0.770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3.63	0.884
3	많은 돈을 버는 것	4.09	0.838
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4.29	0.790
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4.20	0.851
6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3.70	0.947
7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3.84	0.917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3.76	0.874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01	0.845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3.88	0.913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3.47	0.939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4.53	0.717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4.53	0.717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4.07	0.949
15	일이 간단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는 것	3.21	1.072
전체		3.96	0.468

* 자료: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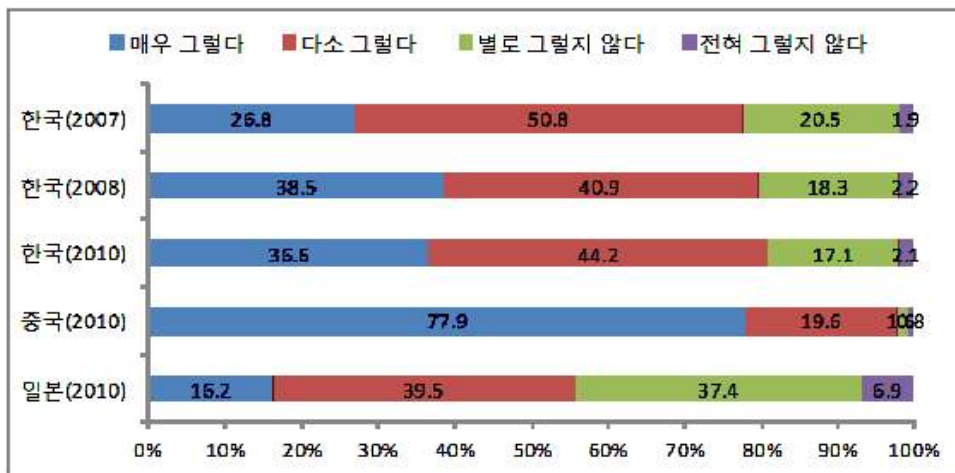
직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직업을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는지,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최인재 외(2009)는 청소년들은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에 있어서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직업가치는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등의 직업의 내적인 측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근무환경」, 「높은 고용안정성」,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높은 보수」, 「규칙적인 출퇴근과 휴가의 보장」 등의 외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LG경제연구원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2011)에 의하면 20대의 직장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어느 세대보다 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일에 대한 동경이 강하였다.

미래세대에 있어서 직장이란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의 장이어야 한다.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직장에 얽매이기 보다는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10명 중 8명은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07년 77.6%, 2008년 79.4%, 2010년 80.8%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1.9%p 감소하였다.



【그림 16】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4) 직업 선택 기준 15~19세는 적성과 흥미, 20~24세는 안정성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아버지는 ‘수입(39.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자녀들은 ‘적성과 흥미(26.7%)’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세의 자녀는 직업의 ‘안정성(26.9%)’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 4 직업선택요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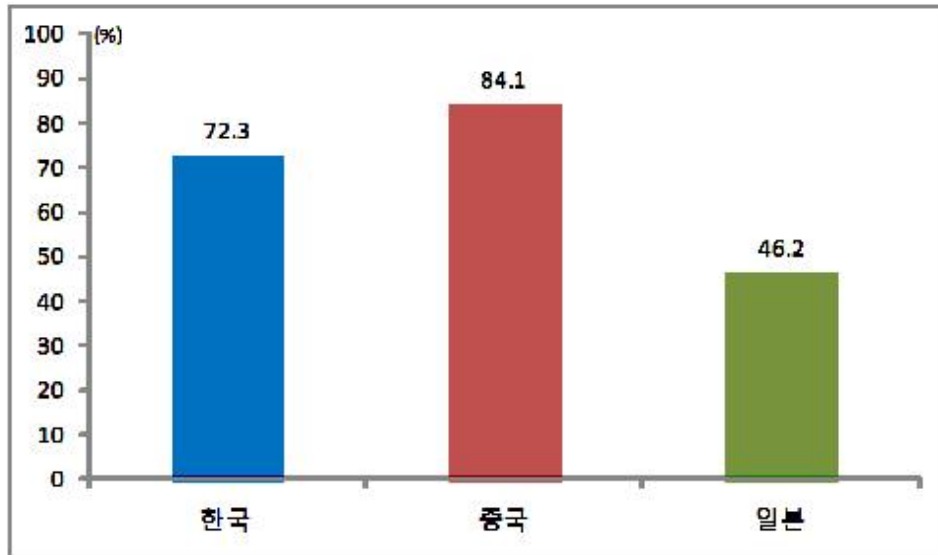
	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 타
아버지	100.0	3.5	33.8	39.9	6.1	7.0	8.3	1.5
자녀	100.0	4.1	22.5	25.2	26.7	10.1	10.1	1.4
15 ~ 19세	100.0	4.5	19.6	24.6	30.1	10.2	9.4	1.6
20 ~ 24세	100.0	3.4	26.9	26.1	21.6	9.9	11.1	1.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09)

4. 공동체 · 시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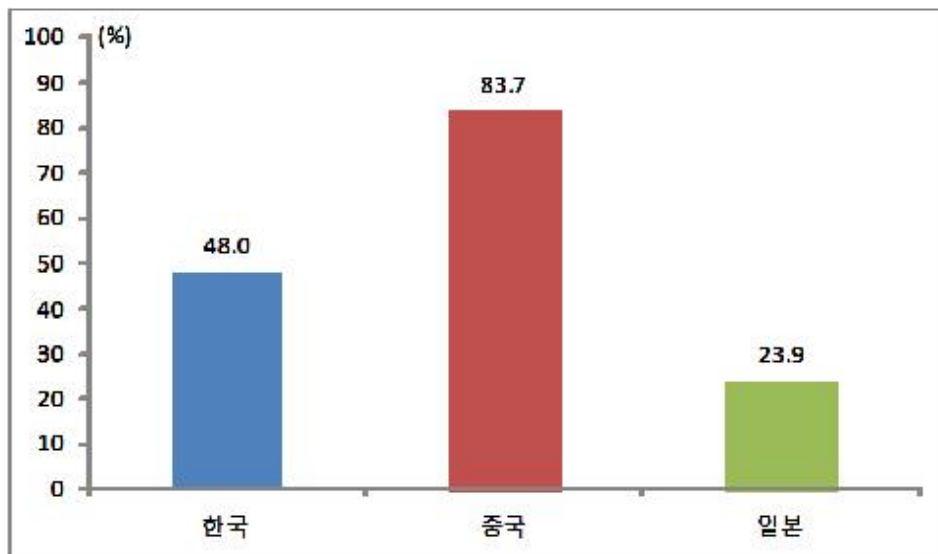
1) 애국심은 높고 희생정신은 중간 수준

2010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들 중 72.3%가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는 2007년 50.3%, 2008년 59.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이들 세대의 애국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48.0%로 희생정신은 중국의 83.7%, 일본의 23.9%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었다.



【그림 17】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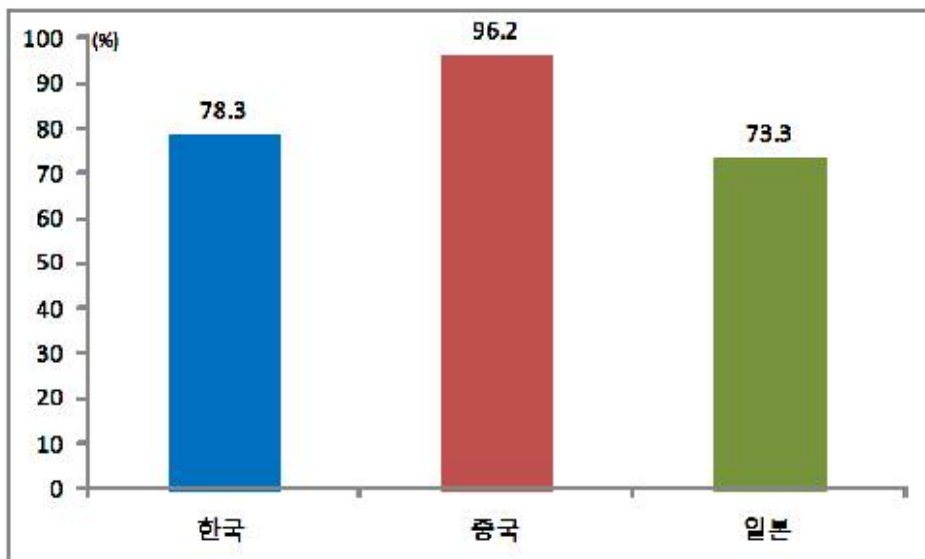
【그림 18】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2)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높으나 외국에서의 삶도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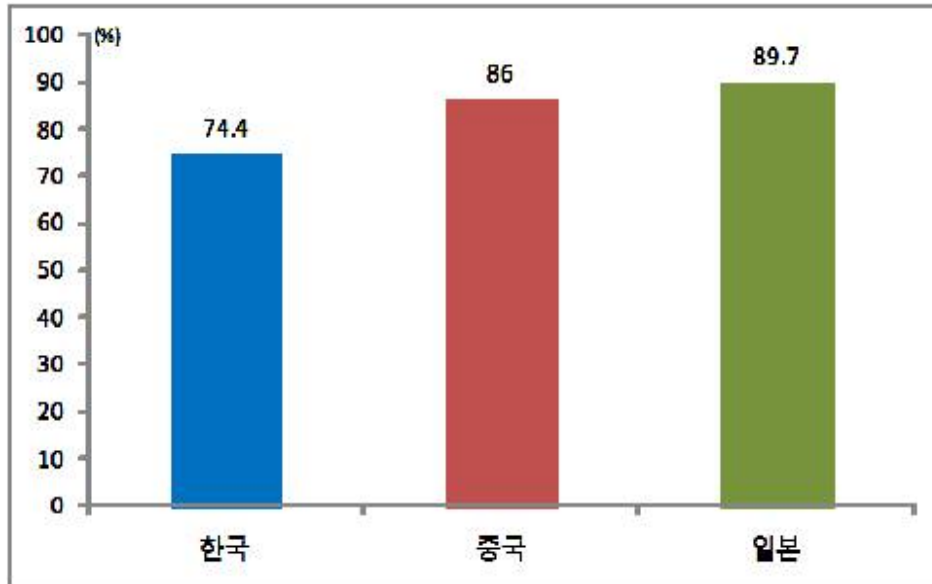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8명 정도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한국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과반의 청소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응답의 성향을 보였다.

미래세대는 G세대라고 불릴 만큼 높은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른 세대에 비해 어려서부터의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의 경험이 많아 자연스럽게 글로벌 감각을 가지게 된 세대이기도 하다.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시에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펴는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들 세대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또는 도전의 표현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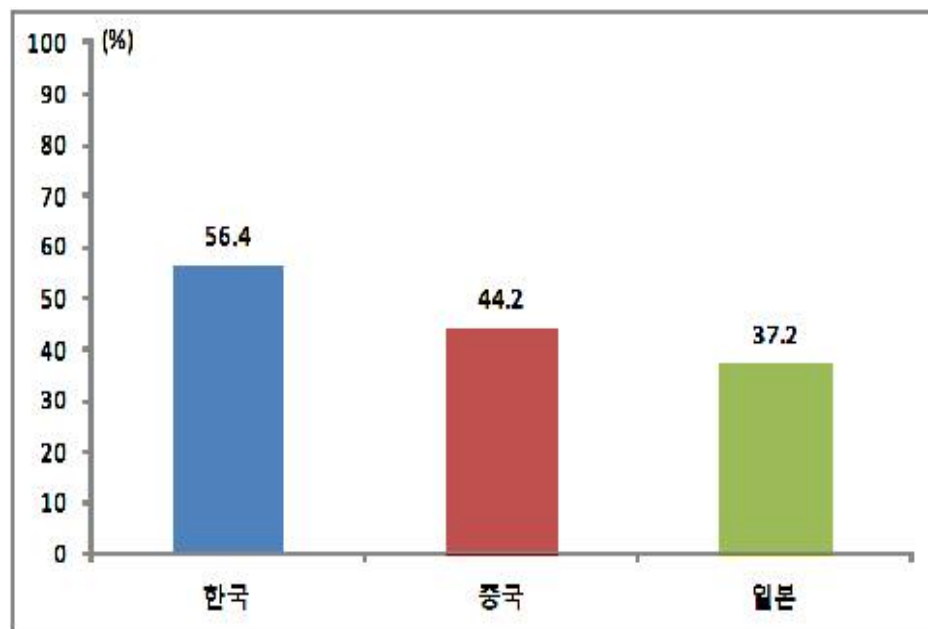
【그림 19】 나는 내가 한국인(중국인/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그림 20】 한국(중국/일본)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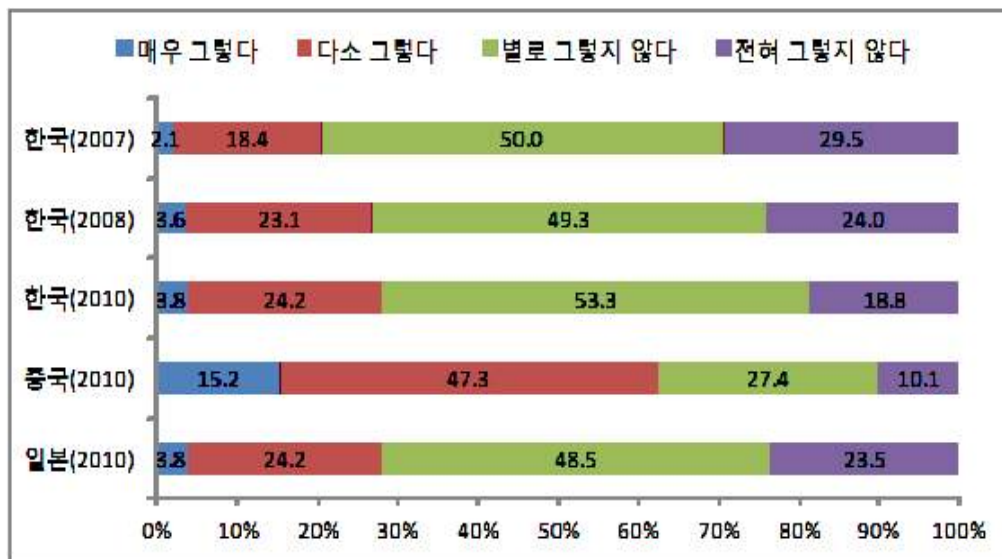


【그림 21】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10). 중고등학생 대상

3)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은 낮은 수준

“우리사회는 공정한 사회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07년 20.5%, 2008년 26.7%, 2010년 28.0%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인재 외(2011)는 공정성은 사회정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정의의 핵심 요소인 공정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래세대가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사회규범과 절차가 무력화되기 쉽고 힘의 논리만이 남아 사회적 갈등과 위화감은 커지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어려워지게 되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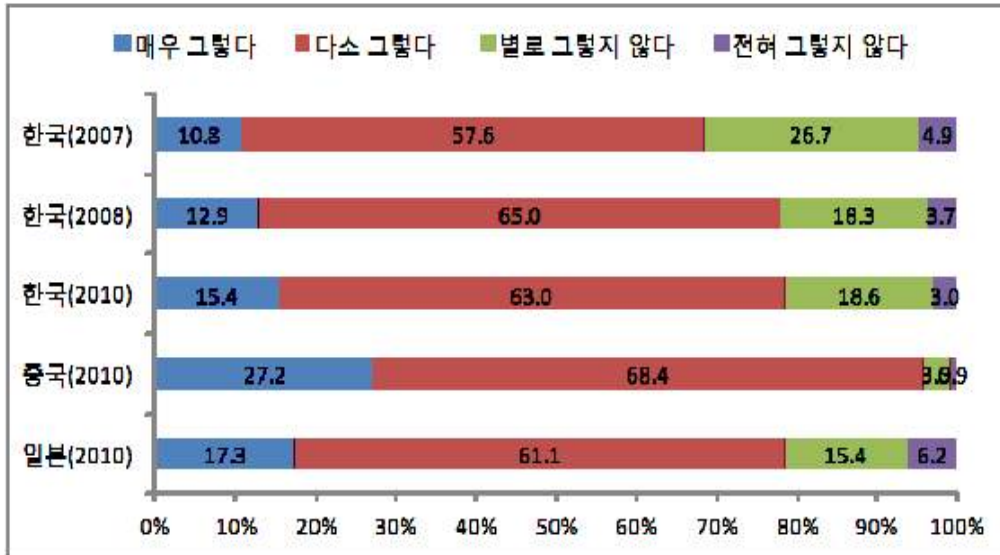


【그림 22】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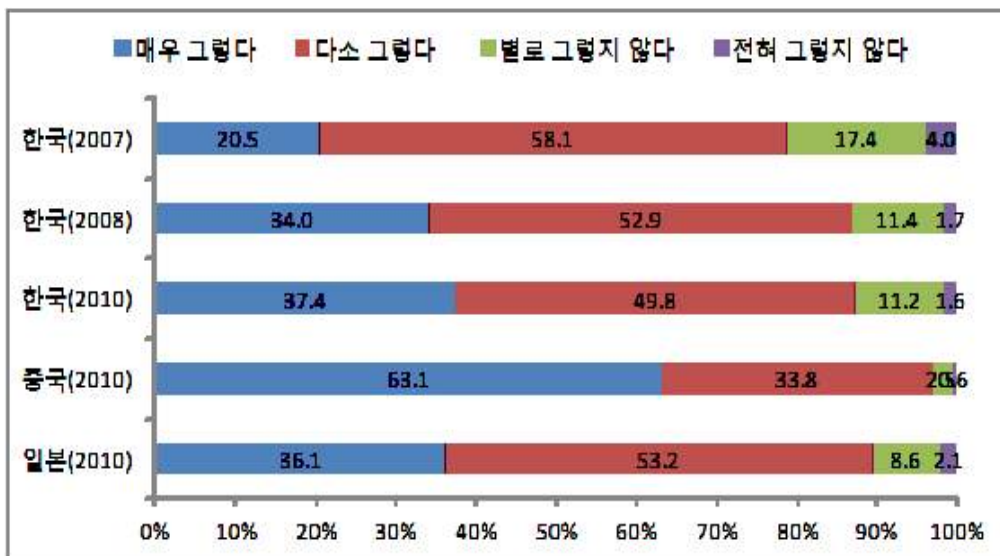
4) 다문화 수용성 점차 향상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 청소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하겠다는 생각,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들을 친구로 여기기보다는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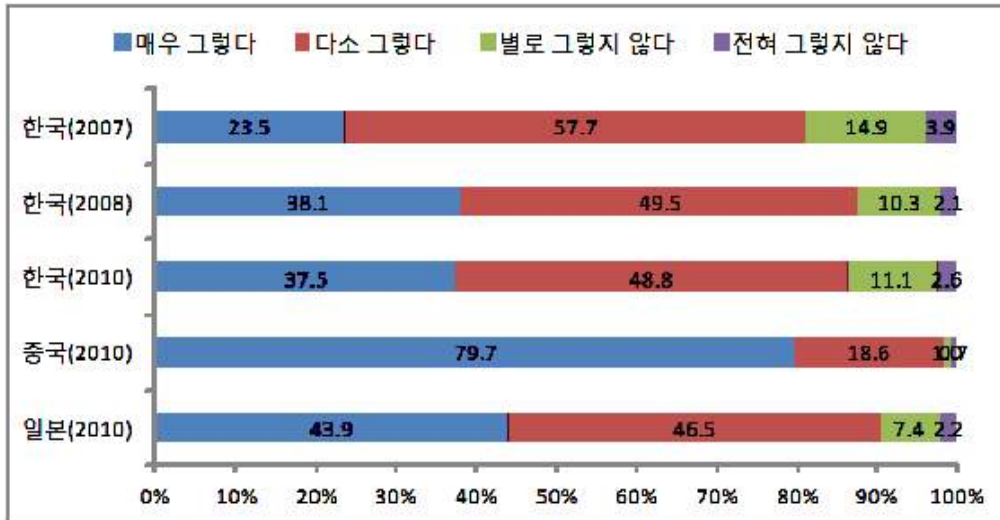
【그림 23】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그림 24】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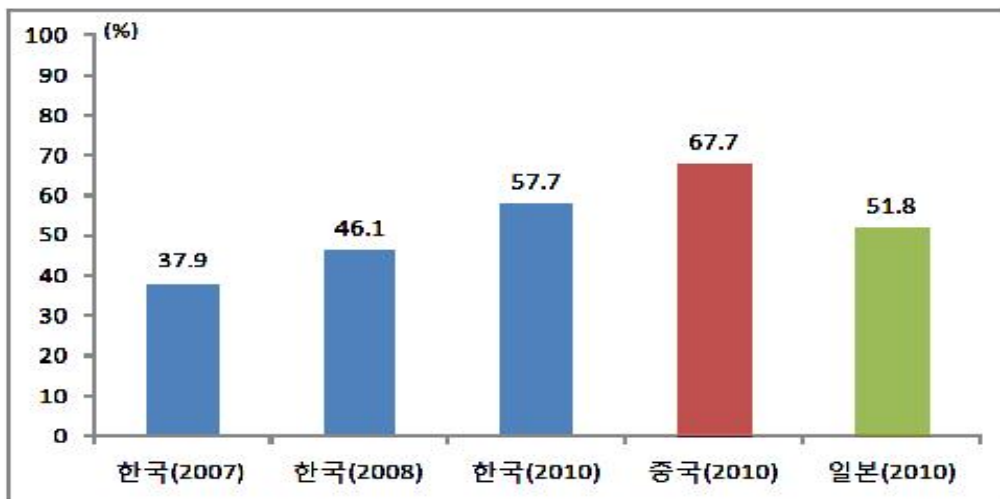


【그림 25】 다문화 청소년은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5) 참여의식 점차 증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2007년 37.9%에서 2008년 46.1%, 2010년 57.7%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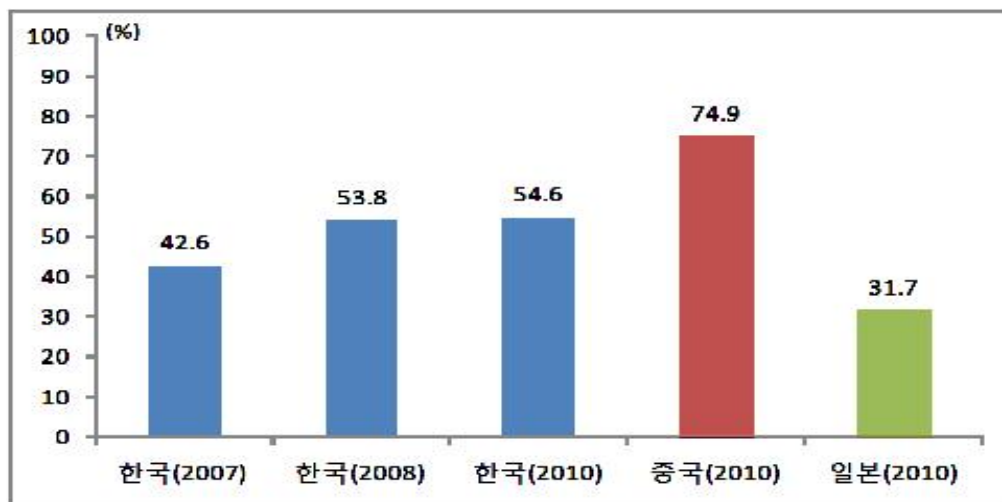


【그림 26】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²⁾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2) 2007, 2008년도 질문 내용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임.

또한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응답은 2007년 42.6%, 2008년 52.8%, 2010년 5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인재 외(2001)는 이를 2008년에 있었던 촛불집회나 디지털 정치참여 활성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았다. 이종원·김영인(2009)은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결과, 사회·정치의식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도는 성인보다는 낮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고, 중고등학생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는 20·30대와 유사하고 노년층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정치문제 보도의 접촉경로로서 성인들보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고, 인터넷의 정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감을 나타내었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이들 세대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27】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 자료: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7, 2008, 2010), 중고등학생 대상

〈참고 문헌〉

- 김나경(2011). 2011년 대한민국 20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LG Business Insight.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2007).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년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 이종원 · 김영인(20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Ⅱ: 사회 · 정치 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 김지경 · 임희진 · 강현철(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11). 2011 청소년통계.
- 内閣府政策統括官(共生社会政策担当)(2009). 第8回 世界青年意識調査.



주제발표 2

인생, 행복, 성공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함인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인생 · 행복 · 성공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임을 그 누가 부인하랴. 우리 모두는 청소년기를 지나왔다. 그 시절이 활기차고 풍요로웠던 기억으로 남은 이들도 있을 것ियो, 불행하고 슬픔 가득한 기억으로 남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단 그 시절은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곳ियो,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영역이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려 노력한다면, 나아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다면, 그들은 장차 성숙함과 책임감을 갖춘 어른으로 성숙해갈 것ियो,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미래는 “지금 여기”에 달려 있다(Corsaro, 1997:277 중에서).

1. 사회적 시사점: 청소년기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청소년은 다양한 국제 비교 조사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공에 관해서는 정도 이상의 강박관념을 갖는 동시에 매우 획일적 성공관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일상을 취재한 바 있는 *Time*지 기자는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란 소제목 하에 이들을 “gruesome children”(매우 고된 학생들)이라 칭한 바 있다.

한국 청소년의 삶을 지배하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인생 행복 성공을 주제로 이들 미래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조망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자신의 인생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나아가 성공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사회적 위상과 욕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필히 요구된다.

청소년기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금까지 이들 청소년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상으로 간주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를 둘러싼 공고한 신화(myth)³⁾를 거두어내고 부모

자녀 또한 파워 관계(power relation)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범주로서의 청소년기 개념 속에는 부모가 그들을 향해 행사하는 권위 및 통제가 자연스레 내포되어 있다. 이와 짝을 맞추어 청소년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부모는 위임된 권력으로서의 권위(authority)를 행사하는 주체요, 이에 대해 자녀는 신뢰를 보내고 부모에게 의존할 것이 기대되어 왔다. 이 때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기준으로는 “그들의 복리(welfare)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동원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은 그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교육·가족·건강 영역을 관통하여, 부모로 대변되는 성인에 의해 구성되고 통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단 실체든 이미지든 청소년을 포착하는 방식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사회적 범주로서의 청소년은 통상적·관례적으로 공유되는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개별적 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가진 파편화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은 분열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집단성을 구성하는 사회구조와 청소년의 개별성을 반영하는 개인행위를 통합하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을 향한 공공의 정서가 상반된 모순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하나의 이미지는 통제와 봉쇄(containment)가 필요한 사회집단으로서의 청소년이요,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순수한 심성의 소유자이자 사회적 폭력 및 범법행위의 일차적 희생집단으로서의 청소년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적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에 대한 강한 동정심과 아울러 충분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대한 비탄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된다.

청소년에 대한 모순적 양가적 이미지는 서구에서도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청소년의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법과 사회정책 속에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극히 익숙하고 친숙한 개별 청소년의 다양성은 쉽게 간과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3) 여기서 신화라 함은 객관적 근거나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를 위시한 가족관계는 다양한 신화에 둘러싸여 있다. 가족 성원들 사이에는 정서적 유대와 이타주의를 자연스런 가치로 강조하고 긴장과 갈등과 권력 불평등이 상존함은 가능한 한 외면함은 가족신화의 대표적 예이다. 가족이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말해서는 안되는가가 더욱 발달된 제도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10대 임신” (teen pregnancy) 은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부모의 태도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곧 미국에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간주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은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청소년을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청소년의 성 또한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10대 임신” 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반면, 유럽에서는 청소년의 성관계가 이른 나이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짐에도 “10대 임신” 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험은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 교육적 시사점: 청소년기 생애주기적 특성의 반영

청소년기 인생 행복 성공을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면, 청소년기 이해를 위한 유용한 사회학적 도구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애주기(life course) 접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세대(generation) 특성이 교차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면, 이들의 인생 행복 성공의 의미에 담긴 고민과 갈등, 분노와 좌절 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나아가 이들의 요구와 욕구를 교육과정에 통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청소년기 인생 행복 성공의 토대가 되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 속에는 2차 성징의 출현과 더불어 문화적 보편성을 띄는 생물학적 사춘기(puberty)와 문화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춘기(adolescence)가 혼재하고 있다.⁴⁾ 특별히 후자의 사춘기는 육체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사이의 괴리가 확대됨으로써 계속 연장되고 있는 단계로, 현대사회 청소년의 고유한 딜레마의 배경이 되고 있다.

2) 청소년기는 탐색의 시기(time of seeking)로서, 나는 누구인가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기요,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밖을 향해 탐색하는 시기요, 친밀성을 향한 갈망을 충족시켜줄 상대를 찾는 시기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는 혼돈의 시기(time of turbulent)

4) 실제로 서구사회의 사춘기와 M. Mead가 연구한 사모아 섬 소녀들의 사춘기를 비교해보면 사모아 섬의 경우 사춘기 고유의 갈등도 야망도 발견되지 않았다.

로 장밋빛 전망을 가득 안고 아침에 눈을 뜨는 시기이자 동시에 외로움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3)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청소년기 신체적 변화에 부여하는 의미는 성(gender)과 계급(class)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더불어 이 시기 성적 성숙과 지적 성숙 그리고 사회적 성숙 사이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다만 호르몬 작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성을 지혜롭게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

4) 콜버그에 따르면 청소년기 도덕성은 초기에는 처벌이나 승인(인정) 받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대한 불안에 기초하나, 후기로 갈수록 권위 및 공공의 선에 대해 동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발달시켜간다고 본다. 대신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한 청소년 시기엔 기성세대의 현실주의를 폄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5) 사춘기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문화(Adolescent Culture)를 만들어가는데, 성인 세계로부터 격리 소외될수록 자신들만의 취향과 이해관계에 민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성관계를 통해 친밀한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고, 자율성을 추구함으로써 부모의 강제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도 바로 이 때이다. 단 변화는 갈망하나 대안은 부재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6) 청소년기는 운전면허, 음주, 투표 등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성숙한 행동을 할 것이 기대되고,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게 된다.

7) 청소년기는 대학진학, 취업, 결혼 배우자 선택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보다 구체적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인생 행복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 존중감과 부모의 지지로 형성된 자기 신뢰를 들 수 있다.⁵⁾

8) 청소년기 최대의 과업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다.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은 안정된 자아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서기까지는 가능한 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의지하거나 자신만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지나친 “역할 확산(role diffusion)”도 경계의 대상이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통

5) 하층계급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무관심, 재정 지원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향한 동기나 열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소년 소수집단(minority youth)의 경우 비행과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합하고 일정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 예로는 연극 속의 연기하는 자아와 실생활 속의 자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배우들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사이버 세계가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role diffusion이 심화되거나 다중 자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특별히 의미있는 타자와의 네트워크는 라이프 코스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9)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기로부터 초기 성인기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 과정의 이행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고 성공 및 행복의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생애주기의 과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가능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하에서 청소년기 생애주기 과업의 상당 부분이 희생되거나 대학입학 이후로 지연되고 있다.

향후에는 청소년기 생애주기의 과업이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찾아서

아프리카에는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속담이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촌락에는 양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들이 다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제 3의 길의 주창자인 기든스는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가족제도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곧 가족의 사회적 위상과 의미를 부활함으로써 “(가족의) 질 높은 삶, 가족 성원 상호간의 존경, 자율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가족이야말로 연령과 세대에 따른 경계와 긴장이 관리되고 협상되는 장인 상황에서, 자녀(아동 혹은 청소년)의 자리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다. 자녀를 통제의 대상에 두고 주체(agency)로서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은 가족의 민주화를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또래 문화를 만들어간다. 동시에 사회구조의 위험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기도 하다. 성인들의 세계는 청소년의 세계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또래집단, 가족, 학교, 기타 사회제도 속에서 행하는 청소년의 행동은 성인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더불어 청소년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과제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청소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보다 온건한 제안으로는 1) 부모자녀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청소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관심(attention)이지 간섭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상기하길 원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요구는 현대적 삶의 양식과 충돌하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모 자녀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고립으로 인한 한계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조부모 및 친족 간 거주 지역도 멀어지고 있으며, 이웃의 유대도 과거에 비해 공동체적 속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들 가족의 고립은 연령과 세대, 성별 그리고 계급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자녀들은 집단적으로 타인과 “연결망을 구성(weave their webs)”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은 보다 다양하고 지지적인 사회 영역과 그들의 관계망을 공고히 해줄 지역사회를 갈망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가족, 동료들이 있는 학교, 그리고 이웃 문화 속에서 안정감 있는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

2) Good Parenting과 관련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유아교육 전문가 벤자민 스포크 박사는 “부모가 되는 길에 왕도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 자신들이 가장 잘 압니다. 따라서 부모의 Gut을 믿으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특별히 가족공리주의 및 집중 모성(intensive mothering)이 발달된 한국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행복과 인생 성공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입장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이들(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 성적의

고하, 부모자녀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다.

빈곤한 청소년에게 절실한 정책과 부모의 강제로부터의 자율성이 시급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요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 스스로 생애주기상의 다양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을 도입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꿈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고 성공의 비전 또한 정형화되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 탐색하는 프로그램, 나의 진정한 꿈을 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 직간접적 경험을 해보는 프로그램, 행복이란 무엇인가⁶⁾,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프로그램 등이 도입된다면 실질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다.

5) 청소년 사회화의 주체자 중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교사들이 청소년 인생의 mentor가 되고 긍정적 role model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현재 교사들은 직업으로서의 교직에는 만족하나 교사-학생 관계에서는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공교육 위기 혹은 교실 붕괴가 지속되는 한 청소년들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꿈을 설계하는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파워를 확보하고 있는 미디어는 오락의 기능을 넘어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중을 교육시킬 의무까지 지고 있다. 이제 미디어로 하여금 청소년의 현실을 수동적으로 반영한다는 변명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청소년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멈추고, 생산적 논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북돋아야 할 것이다.

6) Oxford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영역은 일과 여가 경제적 풍요로움이 건강이나 가족 친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 자아 존중감이 높을 것,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임없이 노력할 것, 정서적 성숙함을 확보할 것 등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문헌〉

- 강준만, 1996 [서울대의 나라] 개마고원.
- 김정근, 1999 [대학 서열 깨기] 개마고원.
- 김덕영, 2007 [입시 공화국의 종말] 인물과 사상사.
- 김동훈, 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한길사.
- 김은실, 2005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사교육 전략] 이지북.
- 김혜련, 2003 [학교종이 땡땡땡] 미래 M&B.
- 방하남 외,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한국사회학] 37(4): 31-66. 미래교육연구회, 1993 [미래교육,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오욱환, 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집문당.
- 전인권, 2003 [남자의 탄생] 푸른 숲.
- 조정문, 1999 “정보화 시대의 공동체: 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집(여름): 389-415.
-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in America*, London: Routledge.
- Cerulo, Karen, 1997, “Identity construction: New Issues, New Directions” ,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385-409.
- Cohen, Gaynor, ed. 1987, *Social Change and the Life Course*, London: Tavistoc.
- Corsaro, William, 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California: Pine Forge Press.
- Greenberger, E. and J. Steinberg, 1986, *When Teenagers Work*, New York: Basic Books.
- Hawkey, Roy 2001 "Science beyond school: Representation or re-presentation?" pp.104-127 in A. Loveless 외 ed. *ICT, Pedagogy and the Curriculum: Subject to change*, London: Routledge.
- Hockey, J. and A. James, 2003, *Social Identities Across the Life Course*, London: Palgrave.
- Kurz, Demie. 2006, “Keeping tabs on teenagers” pp.84-103 in J. Gubrium &

- J. Holstein eds. *Couples, Kids, and Family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rtimer, Jeylan and M. Shanahan eds. 2003,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ew York: Plenum Publishers.
- Tucker, K. 1998, *Anthony Giddens and Modern Social Theory*, London: Sage.
- Warner, Rebecca L. 2006, “Being a good parent” pp.65–83 in J. Gubrium & J. Holstein eds. *Couples, Kids, and Family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주제발표 3

가족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김현주 교수(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가족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 가족 영역에서의 가치관 변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족은 구조적으로 소규모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다양화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함께 기능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가족은 애착과 유대, 친밀성에 근거한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주의적 접근에서는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구조의 다양화를 경험하게 된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에 한정된 유대나 관계를 강조하기 보다는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지향적 성격을 지닌다(김현주·손승영·이진숙, 2006). 대학생들은 가족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정의하였으며 비혈연이라도 애정을 나누는 관계를 강조하였다(양옥경, 2001). 중학생의 가족개념에 대한 질적연구(김현주·이길자, 2009)에 의하면 가족개념의 공통적인 주제군은 “경험에 따른 자기 스스로의 가족조건,” “역동적인 관계와 기능,” 그리고 “변화와 적응하는 자연적 존재”였다. 청소년들은 혈연보다는 애완동물이라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였다(김현주·이길자, 2009).

핵가족의 이념적 기초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근거한다. 산업사회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쉽게 부합할 수 있고, 봉건적 신분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남과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존재들에게 가족은 공적영역과 분리된 사적영역으로써 따뜻한 인간관계를 제공하는 휴식처로서 기능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사랑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Shorter, 1977), 부모이외에 사랑을 받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핵가족 구조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사랑의 철회라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훈육하였다(Poster, 1978).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이 안식처라는 신화가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심화되는 경쟁과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상화된 사랑은 핵가족 제도를 유지시키려는 허구로 보고, 사랑의 불안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랑에 충실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탈근대의 가족은 전체로서의 가족보다는 자유롭고 양성평등이 내면화된 인간관계를 이상화하고 있다(김현주·손승영·이진숙, 2006).

근대가족이 보편성과 역할분화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후기산업사회의 가족은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역할의 탈분화를 초래한다고 본다. 근대가족의 핵가족 형태는 가족 내 결속을 중요시하는 일체감이 중요한 가족가치였다면 후기산업사회의 가족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강조한다(엘킨드, 1999). 그러나 개별성에 대한 강조는 자녀보다는 부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엘킨드(1999)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족에서도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의 통합을 지향하는 욕구가 있다. 즉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식이 부각되고 있다(양옥경, 2001).

기존연구들(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김정신, 2010, 1998a, 1998b; 김민희·홍주연, 2010; 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김정란·김정신, 2009; 나은영·차유리, 2010; 변주수·진미정, 2008; 옥선화·진미정, 2011; 우조은·김의철·박영신, 2008; 이미란, 2010; 정옥분·정순화·김경은·박연정, 2007)에서 많이 다룬 가족관련 가치관들은 자녀관, 결혼관, 부모부양관이다. 예상한대로 노년세대나 부모세대들이 가장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청소년 세대가 가장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김정신, 1998a; 1998b; 우조은·김의철·박영신, 2008). 중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차이보다는 중년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가족가치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김정신, 1998b), 청소년세대의 연령구분이 한 살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김정신, 1998b), 앞으로 가족가치관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청소년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세대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에서도 자녀의 가치나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대한 기대나 부모부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그러나 최근의 연구(나은영·차유리, 2010)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변화의 초반에는 20대 젊은 세대의 변화의 폭이 커서 세대차이가 컸지만 최근에는 50대의 빠른 변화로 인해 세대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래세대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자아실현과 부귀영화를 중시하며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다(정명숙·김혜리, 2005).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에 의하면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15-19세는 57.6%, 20-29세는 64.7%였다. 결혼경력자와의 혼인, 연상이나 연하와의 결혼,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 젊은 세대일수록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다(조성남·윤옥경, 2000). 부모역할보다는 부부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성남·윤옥경, 2000). 자녀를 꼭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률이

20대와 30대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조소연·오윤자,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부양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희·홍주연, 2010; 이종원 외, 2004).

가족가치관 중에서 어떤 가치관이 가장 크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자녀관과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김경신, 1998b), 결혼관과 성역할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김경신, 1998a). 연구에 따라서는 젊은 세대의 자녀관이 여전히 전통적이라는 결과도 있고(김경신, 1998a), 현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결과도 있다(우조은·김의철·박영신, 2008). 특히 자녀양육에 가치를 부여하는 점은 전통적이지만(김경신, 1998a),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개인적 성취나 여가생활, 직장생활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우조은·김의철·박영신,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적 성향은 세대를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신, 1998a, 1998b; 김민희·홍주연, 2010; 양옥경, 2001, 2002; 양옥경·김혜영, 2001).

2.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른 도구적 가족주의의 대두

특히 가족주의적 가치관과 자녀양육과 같은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과 정책적 지향성은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변주수·진미정, 2008).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의식은 약화되었지만 나의 가족이 사회보다 우선하는 가족중심성(가족우선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발견하였다(양옥경·김혜영, 2001). 다만 가족중심성이 발휘되는 영역이 핵가족으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한국사회는 가족 내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자녀 양육, 노인부양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교육적, 정서적 지원과 같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복지를 가족이 책임지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가족에게 과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도구적 가족주의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백진아, 2007; 변주수·진미정, 2008; 손승영, 2006).

국가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던 시기에 공적영역이 축소되는 대신 ‘가족단위 중심의 생존’이 개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 가족은 개인이 삶을 의존할 보루가 되었다(조혜정, 1985). 혼란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가족중심주의로 재구성되기도 하였다(신수진, 1998). 증가하는 개인주의는 서구와 달리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정 속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성격의 개인주의로 진행되어 왔다(손

승영, 2006). 이와 같이 왜곡된 개인주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결합하여 핵가족을 단위로 하는 집단적 개인주의 성격을 띠게 된다(임희섭, 1994). 국가에 대한 신뢰나 시민사회적 행동양식은 발달되지 못한 채, 가족중심의 단합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기적인 개인의 목적이 가족을 단위로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다(손승영, 2006). 국가에 대한 헌신보다 가족에 대한 헌신을 우위에 두는 현대 한국의 가족주의는 불안정한 사회체제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었다(김동춘, 2002). 가족이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게 되고, 자원배분의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의존할 수 있는 관계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배타성에 기초한 가족관계였다(손승영, 2006). 보편적 사회복지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안정은 사적 복지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가족복지의 책임을 맡은 가족은 정서적 기능의 충족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 추구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백진아, 2007). 이러한 한국형 가족체계를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은 아동양육과 노인부양 등의 기능을 가족에게 전담시켜 발전전략을 세웠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에 기반하여 부모의 이익을 양보함으로써 자식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백진아, 2007; 손승영, 2006).

실제로 가족주의 가치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양옥경, 2002). 전통적 가족가치를 지니는 집단에서는 양육수당이나 출산수당과 같은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다 개방적인 가족가치를 지니는 집단에서는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즉 대체적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변주수·진미정, 2008).

이와 같은 도구적 가족주의는 세대간 계급이동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어 생존경쟁과 불평등의 문제를 자녀들이 해결해 주기 바라는 기대 속에 자녀의 교육에 과잉투자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백진아, 2007). 부모 모두에게 자녀의 학업과 대학진학을 가족의 목표로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의 형성보다는 학업성적인 진로개발에 역점을 둔다. 성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녀와의 관계는 일상적인 소통이나 감정의 교환, 놀이의 공유가 부재하므로 친밀성이 부족하게 된다. 교육에의 투자는 합리적인 투자로 간주된다. 경쟁의 심화와 불확실성의 증대,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에 더하여 가족의 안정과 지위재생산에 대한 욕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교육을 통해 가족의 생존과 미래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도구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녀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의 모든 뒤통수까지 감당하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도는 심화된다.

개인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대 가족에서 개인의 선택과 관계에 대한 의미부여와 평가는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사랑과 친밀성이 강조되는 현대 가족에서 보편적 사회복지 체계가 부재한 사회적 상황과 결합되어 도구적 가족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가족내부 구성원간의 서로 다른 차이와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백진아, 2007).

3. 가족 가치관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가족구조에서의 다양성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방향이고, 가족 가치관에서도 전통적 성향을 보이던 중년세대들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세대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양성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Struending(2002)은 가족과 가족정책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세 가지 원칙은 자유와 평등, 다양성을 말한다. 자유의 원칙에서는 섹슈얼리티와 출산, 친밀한 관계의 형성 등에서 개인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현대 가족에서는 정서적 친밀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돌보고,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느냐의 문제는 가족에 대한 의무나 성역할규범이 아닌 관계의 구성적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친밀한 관계의 성격과 형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며, 자기결정권의 발현이다. 두 번째로 평등의 원칙은 가족개념의 정의가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부모 가정, 확대가족, 복합가족과 동성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합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야만 평등의 원칙이 적용가능하다. 보통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은 빈곤과 결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야만 이들을 돌보는 정책이 가능하다.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기회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투자가 동등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다양성으로 각 개인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를 발생시킨다. Struending(2002)은 전통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양부모 가족을 회복시키자는 주장이나 양부모가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를 보호하고, 평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Struending(2002)은 가족이 정서적 생활과 물질적 지원, 성인과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성공적인 가족은 소규모의 상호조력의 사회이며, 그 안에서 자원이 동원되고, 친밀감과 동반자적 욕구가 만족될 수 있으며 돌봄이 실행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Struending(2002)의 주장은 현대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도구적 가족주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개인의 선택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특정 가족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도구적 가족주의와는 다르다. 두 번째로는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지원과 기회구조를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구조와 관계양상을 보이는 가족을 주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면에 의한 과시적 양상(손승영, 2006)을 보이는 한국의 도구적 가족주의와는 다르다. 따라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허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통해 평등과 자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도 요구되어진다.

미래세대의 가족가치관 변화들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개인주의 경향의 증가는 가족 영역에서의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하게 만든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영역에서 청소년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이지만 가족이 돌봄기능이나 안전망으로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현주·마경희·손승영·이진숙, 2007). 이러한 변화방향 속에서 청소년의 동반자적 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1) 정책적 시사점⁷⁾

동반자적 가족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가족지향 가치관이 강조되는 가족이다. 핵가족이 아닌 형태에서도 가족간의 애정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정보화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가족간의 애정과 정서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 가족지향적 가치관으로 인해 다원화된 문화적 맥락안에서도 가족의 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원화된 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구조내에서도 가족의 유대와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적응을 쉽게 하면서 가족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지지함으로 인해 양성평등적 가치관 역시 지지를 받아 가족내 역할수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된다. 책임과 의무에 기초한 자율성으로 인해 부모에게의 의존성은 감소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 도구성이 감소한다.

동반자적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부모는 자녀의 권리와 자율성

7) 이절에서 제시되는 동반자적 가족에 대한 논의는 김현주·마경희·손승영·이진숙(2007)의 연구에 준한다.

을 존중하고, 청소년 자녀 역시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위와 감독의 의미와 권한을 인정한다. 가족 구성원간에 애정에 기반한 관계유지와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지지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양식을 채택한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수평적인 관계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양성간에도 평등적 관계를 지향한다.

청소년의 자율성 영역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생활영역에서는 상업화되고 사회화된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게 된다. 경제영역에서는 첫 취업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늦게까지 의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동반자적 가족의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적 행동에 대한 요구와 훈련을 받게 되므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로서 다양한 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자원을 제공받고 후원과 격려를 받는다. 그러나 미래에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경험에 근거한 개입이나 통제적 후원은 효율적이지 않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적성과 목표 탐색이 유용할 것이다. 학습영역에서도 동반자적 가족의 청소년들은 자발적인 학습과정과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미래에는 정규교육의 완료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규교육의 완료가 직업의 시작이며 교육의 완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제도를 통한 자율적 학습이 진행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에 개입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행동영역에서도 결혼시점과 주거독립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성에 대해 수용하는 대신 이러한 성행동의 책임과 안전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성행동은 청소년의 성장과 연령, 준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행동을 강조한다.

동반자적 가족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함께 가족지향가치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동반자적 가족에서는 가족지향가치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반자적 가족에서의 가족지향성은 가족중심주의나 가족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개인 구성원의 인격적인 측면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희생이나 과도한 의무에 기초한 가족지향성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 구성원의 유대와 애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반자적 가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 외적 사회복지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가족 내부에서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역할과부하를 경험하게 되면 가

족 자체가 붕괴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와 대가족, 친구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년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다문화적 맥락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가족의 네트워크적 성격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가족은 사회와, 다른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접점을 갖고 있다. 사안에 따라 기능수행의 단위가 되는 접점이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유연하게 가족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접점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센터의 제공과 가능한 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이 요구되어 진다.

2) 교육적 시사점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인지적 교육활동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그 실천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은 자신이 속한 가족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와 성향을 지니므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정규교육형태로 가치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체험활동과 실천을 통한 가치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부모를 바꿔 보는 모의실험을 통해 역할변화나 가치관, 규범을 재정립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역할이나 자녀역할 멘토와 같이 다양한 적응방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책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과 같은 자율성은 의무와 책임감의 증진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친밀감을 강조하는 도구적 가족주의는 부모가 자녀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녀의 교육에 과잉투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에게 의존적이 되고 가족기능에 대한 과잉기대는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가족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든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천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영역에서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시사점

한국가족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분리하는 가족이기주의적 배타적 가족주의 논리가 강화되었다. 한국의 체면을 중시하는 가족집단주의적 가치체계

에 더하여 외부와의 배타적 구분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인식하는 가족경계유지 의식이 다른 가족과의 구별짓기를 통한 상호경쟁을 강화시켰다. 모든 영역에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중심적인 사고와 가족주의는 과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비를 향유하고 타인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경쟁적 분위기에서 가족주의는 지위재생산이나 신분상승에 집착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측면이나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간과한 경향이 있다. 과도한 기대에 의한 부담은 구성원들이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여, 변화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손승영, 2006).

사회적으로 타인을 배제한 가족이기주의에 기초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족이기주의를 벗어나 공동체와 다른 가족구성원과 공생을 목표로 해야 가족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과 외부인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과 관용성의 증진을 통해 누군가의 희생에 기초한 과시적, 도구적 가족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기초로 할 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를 존중하고, 다양한 형태와 특성에 의한 가족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 진미정 · 옥선화(2010). 비혼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 김경신(2010). 한국여성과 재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비교연구--코호트 및 개인사 분석을 통한 지속과 변화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271-296.
- _____(1998a).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_____(1998b).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 중년 ·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동춘(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55. 서울: 한울.
- 김민희 · 홍주연(2010). 대학생들의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역할 특성과 가족주의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29-546.
- 김의철 · 박영신 · 권용은(2005). 한국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자녀 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정란 · 김경신(2009). 가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33-149.
- 김현주 · 마경희 · 손승영 · 이진숙(2007). **청소년의 동반자, 가족: 미래 청소년 가족의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현주 · 손승영 · 이진숙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I(가족분야): 청소년 가족환경의 변화와 청소년가족정책과제**.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현주 · 이길자(2009). 중학생의 가족개념에 대한 질적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1): 23-52.
- 나은영 · 차유리(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백진아(2007). 한국기혼여성의 가족 경험--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담론** 201, 10(3): 241-269.
- 변주수 · 진미정(2008).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련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9.

- 손승영(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지속과 변화--. **담론** 201, 9(2): 245-274.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호: 175-199.
- _____(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 양옥경·김혜영(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2): 29-55.
- 엘킨드, 데이비드(1999). 이동원·김모란·양옥경 역. **변화하는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옥선화·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67-76.
- 우조은·김의철·박영신(2008). 세대집단별 자녀가치와 가족가치의 차이 분석: 대학생과 부모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70-471.
- 이미란(2010). 기혼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 이종원 외(2004). **전국청소년 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정명숙·김혜리(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생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 정옥분·정순화·김정은·박연정(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6-249.
- 조성남·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 논총**, 5: 103-135.
- 조소연·오윤자(2001).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271-284.
-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81-98.
-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Poster, M.(1978). *Critical Theory of The Family*. London: Pluto Press.
- Shorter, E.(1977). *The Making of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Struening, K.(2002). *New Family Values: Liberty, Equality, Diversity*. New York, N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주제발표 4

직업과 교육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진미석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교육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I.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세계화의 사회라고들 한다. 첨단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와 지식,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거래의 터는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시장이 되고 있다. 지식기반의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는 직업세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직업 숫자가 4천여개에서 2만여개로 5배 이상 증가함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직업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어 직업세계는 더욱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수록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들은 좋은 경제적 조건과 근무환경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미국에서 새로 생긴 직업의 85%는 고등한 지식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직업세계의 변화에는 이처럼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어두운 모습도 함께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첨단기술과 컴퓨터화로 인하여 일자리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알려주는 고용유발계수는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어 1995년에 GDP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회사나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수가 17개 늘어났다면 지금은 10개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소되고 있는 일자리에 비해 대졸이상의 고급학력을 갖춘 인력들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특히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직업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정태적인 직업세계의 모습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일과 여가, 개인생활과의 균형을 강조하거나 직업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직업선택에 있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어, 변화보다는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소수의 전통적인 직업에 선호도가 몰려있고, 여전히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정보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서 90%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국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은 학생들의 의식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자신을 개발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라기보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생들의 직업과 교육에 대한 정태적인 인식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 및 교육구조, 그리고 학부모 및 교사의 의식의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원인이 무엇이건간에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이나 교육, 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 원고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인식의 일단⁸⁾을 직업과 교육영역에서 살펴보고,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진로개발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청소년의 진로인식의 특징

1. 직업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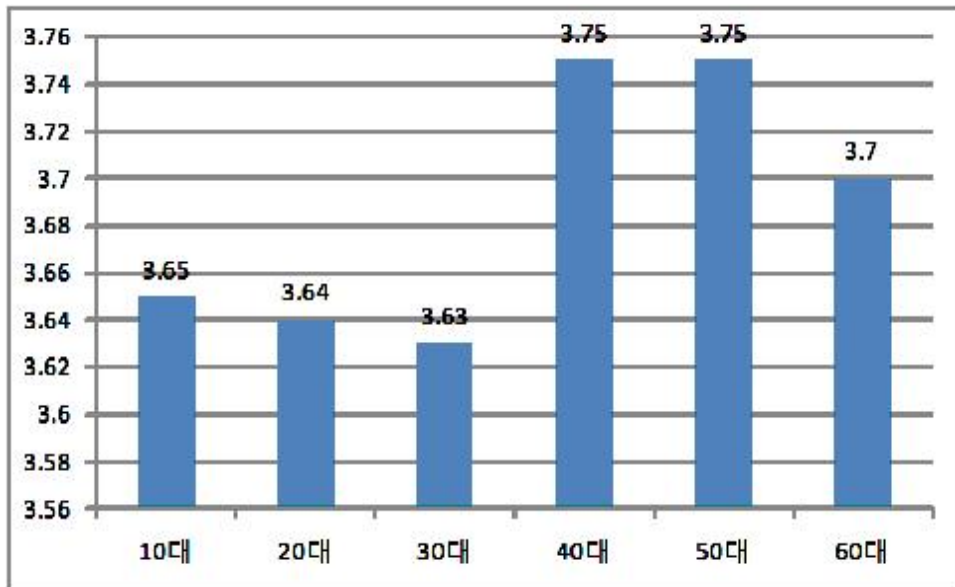
1) 일과 직업을 중시하지만, 직업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약화

다양한 조사들은 일관되게 한국 청소년들은 일과 직업을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한국인의 직업인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삶에 있어서 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청소년에 비해 더욱 중요하

8) 직업과 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자료는 연구진에서 제시한 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시함.

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다른 활동과의 비교, 특히 여가와 대비해 볼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여가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어, 이 세대는 일과 여가와 균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들은 일을 중시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사생활보다도 일을 중시하여야 한다면 같은 직업에 대한 규범적 의식⁹⁾은 다른 세대보다도 약하다.



[그림 1] 직업에 대한 규범적 인식에 대한 연령별 차이

곧, 청소년세대는 일이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강하나, 본질적이거나 당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능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10년의 집단은 2006년에 비해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하다거나(3.61 vs 3.82),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취미생활을 하겠다는 인식이 점차 강해짐을 보여준다(3.71 vs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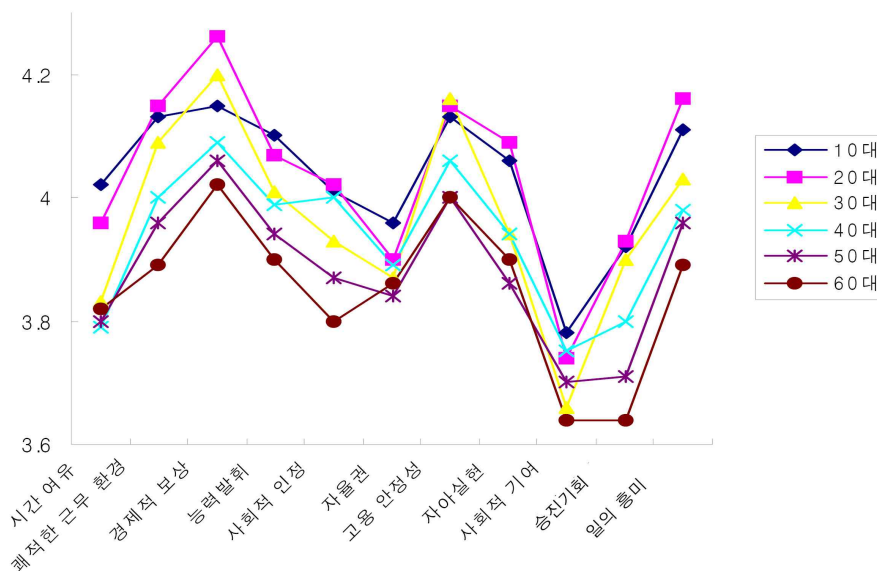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당위적 인식이 중국보다는 낮고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일본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규범적인 인식이 가장 낮고, 중국이 가장 높은 가운데, 그 사이에 미국과 독일 청소년이 위치하고 있

9) 사람은 일을 반드시 해야하고 일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당위적인 인식을 의미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자유시간을 덜 갖더라도 일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항목의 합산으로 평정.

으며, 한국은 미국과 독일 청소년보다 약간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직업생활의 중요한 가치

직업생활에서의 중요한 가치로 10대는 시간 여유, 능력 발휘, 자율권, 고용안정성, 자아실현, 승진기회, 일의 흥미를 중요시하고, 20대는 쾌적한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성, 자아실현, 승진기회, 일의 흥미를 중요시한다. 청소년세대는 시간여유, 쾌적한 환경,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성, 일의 흥미 등이 특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여유, 자아실현, 일의 흥미가 특히 기성세대에 비해 더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조사

[그림 2] 연령별 직업생활에서 중시하는 가치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선택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장홍근 외 2006). 미국과 중국은 높은 소득을, 일본은 좋은 동료를 선택하고 있다. 독일 역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좋은 동료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1〉 직업선택 1기준(17~29세) 국가별 비교

	높은 소득	고용안정성	좋은 동료	성취감발휘직무
미국	39.2	19.6	9.9	31.3
독일	21.1	38.4	17.7	22.8
일본	16.0	28.2	30.1	25.7
중국	33.7	23.0	13.8	29.5
한국	22.8	43.6	7.1	26.4

출처: 임언외 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용안정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직업생활에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한가를 묻는 항목의 응답 결과에서는 2006년에 비해 2010년의 ‘그렇다’ 라는 의식은 약 5%p 가량 상승하였다. 고용불안을 반영하여 20대 청년층에서도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임언 외, 2010).

2.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

직업에 대한 인식은 이전에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직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편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선호직업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10개의 직업에 학생의 50~70%가 그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청소년의 10대 선호직업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빈도수 (%)	직업명	빈도수 (%)	직업명	빈도수 (%)
1	선생님(교사)	715 (15.7)	선생님(교사)	881 (19.8)	선생님(교사)	931 (13.4)
2	의사	479 (10.5)	의사	416 (9.3)	회사원	487 (7.0)
3	연예인	453 (9.9)	연예인	277 (6.2)	공무원	431 (6.2)
4	운동선수	430 (9.4)	법률가	197 (4.4)	자영업/개인사업	256 (3.7)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위	직업명	빈도수 (%)	직업명	빈도수 (%)	직업명	빈도수 (%)	빈도수 (%)	
5	교수	296 (6.4)	공무원	169 (3.8)	간호사	233 (3.3)		
6	법률가	247 (5.4)	교수	160 (3.6)	의사	208 (3.0)		
7	경찰	238 (5.2)	경찰	159 (3.5)	연예인	190 (2.7)		
8	요리사	193 (4.2)	요리사	144 (3.2)	경찰	174 (2.5)		
9	패션디자이너	126 (2.8)	패션디자이너	125 (2.8)	공학관련 엔지니어	158 (2.3)		
10	프로게이머	99 (2.2)	운동선수	117 (2.6)	패션디자이너	150 (2.2)		
	응답인원	3,276 (71.8)		2,645 (59.6)		3,218 (46.2)		
	응답직업수	114		142		226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III. 정책적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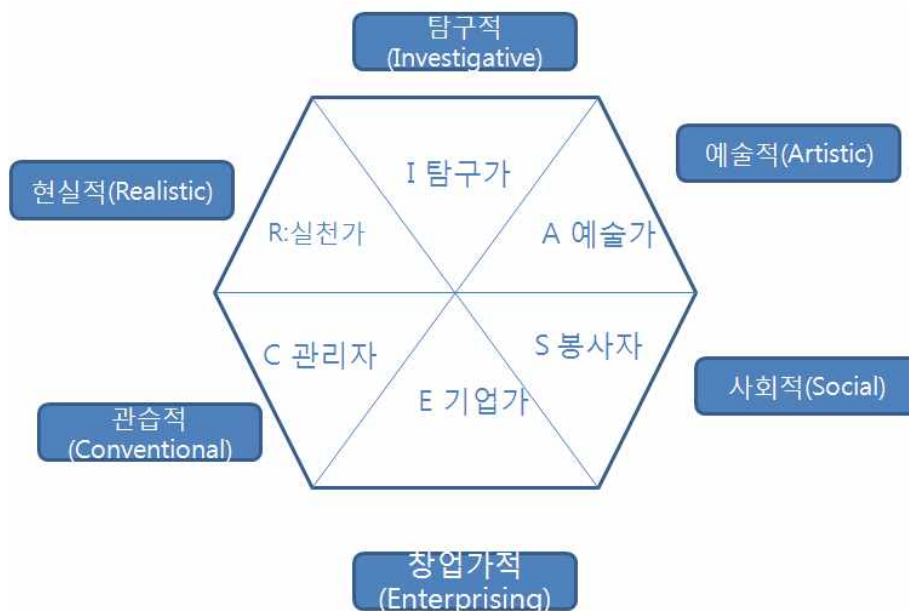
1. 청소년 진로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로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 틀에 맞추는 진로개발에서 틀을 창조하는 진로개발로¹⁰⁾ 이미 시작을 보고 있지만, 미래의 직업세계는 ‘변화만이 변화하지 않고’, ‘무정형이 정형’이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세계를 상정할 때, 미래인재의 핵심은 창조성에 있음은 명확하다. 즉, 새로운 일거리와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기존의 아이디어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창의성’이 변화하고 유동적인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나 직업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정태적이고 안정지향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점차 희소해지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해

10) 본 장은 2010 KERA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Future of the World of Work and Creative Career Development Paradigm"의 발표문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함.

서 엄청난 경쟁을 치르고 있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업세계의 변화와 미래인재의 모습을 상정할 때, 청소년의 진로의식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진로와 직업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로개발정책 역시 그 패러다임의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간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정책은 전통적인 진로개발 모형에 입각해 왔으나, 그 한계는 명확하게 노정되고 있으며, 이 모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진로개발의 모형은 사람과 직업을 각각 몇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양자간의 연결내지 짝짓기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대표적인 모형이 홀랜드의 RIASEC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RIASEC 모형은 사람들의 직업흥미에 따라서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창업가적, 관습적 유형으로 나누고 또한 직업 역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진로지도와 상담가들은 사회적 유형인 사람은 사회적 유형의 직업으로 연결해 주는 것과 같이 사람의 유형과 직업의 유형을 짝짓기 하는 것을 진로지도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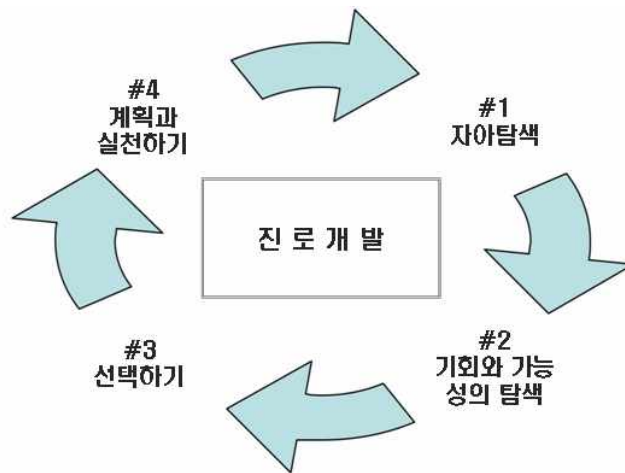


[그림 3] 홀랜드의 RIASEC 모형

짝짓기 진로교육의 모형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 ‘바깥에는 무슨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 ‘그리고 선택하라’ →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 로 이

루어지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전통적인 진로개발모형은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명력이 높지만,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나 선택지가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 설명력은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짝짓기 모형의 설명력은 약화된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로개발모형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형, 즉, 창의적 진로개발모형이 요구된다. 다음은 창의적 진로개발모형을 전통적인 진로개발 모형과 대비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4] 전통적 진로개발 모형

〈표 3〉 창의적 진로개발 모형

	창의적 진로개발 모형	전통적 진로개발 모형
초점	창의/혁신	맞춤/짝짓기
직업세계에 대한 가정	역동적 비정형적, 이질적	정적 정형적 동질적
진로경로	유연한, 대안적 다원적/다층적	정형적 단선적
진로개발의 주요내용	핵심역량 Entrepreneurship 창의성	진단 의사결정기술 정보

자료: Misug JIN(2010), The future of world of work and creative career development.

창의적 진로개발 모형은 기존의 직업세계의 틀에서, 직업유형이나 사람들의 특성을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직업세계에, 그리고 기존의 직업활동에 사람을 찾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고 새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고 지원하는 모형이다. 그리고 창의적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혁신할 수 있는 창업가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2. 창의적 · 대안적 진로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1) 앙터프레너십 교육 강화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업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앙터프레너십이 ILO나 세계 경제 포럼 등 국제기구등에서 최근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의 앙터프레너십을 위하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창업은 서비스업 중심의 생계형 창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창업은 지식과 아이디어 기반한 지식기반형 창업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여 한다.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그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곧,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하는 교육, 즉 앙터프레너십 교육이 필요하다. 앙터프레너십은 ‘시도하다’ 또는 ‘모험하다’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 어 ‘entreprendre’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창의력, 혁신성,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앙터프레너십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혁신을 도모하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열정, 의지와 같은 정신적인 특성과 아울러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앙터프레너십을 함양하는 앙터프레너십교육 역시 의식과 태도,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다.

국내에서 앙터프레너십 교육은 창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일부 특성화고 중심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JA(Junior Achievement), NFTE

등 민간 조직에서 부분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창업교육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특정한 학교중심으로, 소수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체로 창업교육은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업체등록, 마케팅, 회계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거나 혹은 일반적인 경제교육으로 국한되어 있다.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대안적 진로교육으로서 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지 못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앙터프레너십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창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성,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은 단기간 내에 학습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기술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되어야 할 역량이기 때문이다.

2) 내실있는 창업지원정책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조를 위해서는 창업역량강화정책 뿐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산발적인 정책이 있어왔고, 지난 8월에는 청년창업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자본금 지원이나 실패에 따르는 부담 감소 등의 대책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동 외, 2010). 청년창업지원재단과 같은 독립적인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 단계별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아이디어 채집 단계에서부터 본격적 창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대학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및 벤처 자본 등 산업체에서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창의적인 일을 계획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노력을 해 봄으로써,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창업동아리의 결과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나 계획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기회로 연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에서 경쟁력은 혁신과 창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는 혁신과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산업체나 직업인들도 이들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창업분야에 산학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컨대 분야별로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과 현장 직업인간의 멘터-멘티 연결과 지원, 창업을 위한 산학클러스터 선정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안전망구축 지원

청년들의 창의적 진로개발지원을 위해서는 창업교육과 같은 학생들의 역량개발 못지않게, 실패해도 완전한 낙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청년들이 선진국의 청년들에 비해 패기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잘못 사업을 펼쳤다가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도록 청년 창업기금을 제공하고, 실패한 창업경험도 인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실업급여, 의료보험 보조 등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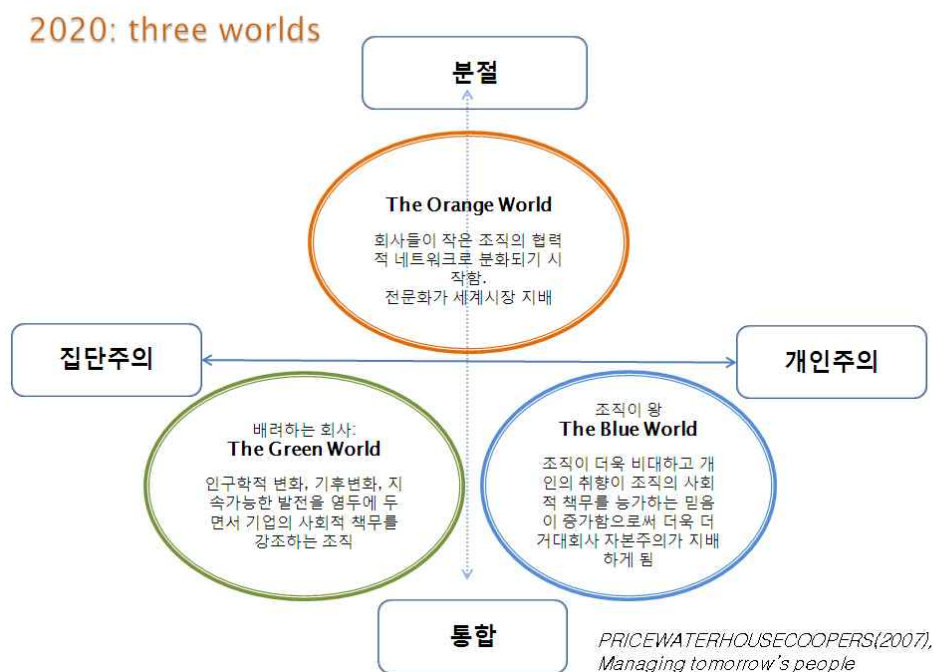
IV. 교육적 시사

1.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1) 미래직업에 대한 교육

미래의 직업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유연하고 빠르게 변화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퇴

근이 명확하고 승진체계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업세계가 주류가 아니라 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일이 있을 때 개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일을 수행해가는 네트워크형 직업세계, 혹은 친환경기업, 사회적기업 같이 사회적 공익과 봉사를 위해 일하게 되는 NGO-NPO(Non-government, non-profit)의 직업세계도 크게 자리 잡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PWC회사가 2020년의 직업세계의 다원화에 대하여, 대기업중심의 블루직업계, 개인네트워크 중심의 오렌지직업계, 공익과 녹색환경을 위한 그린직업계로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직업계가 다원화될 뿐만 아니라 일터 자체도 일하는 유형이나 공간, 구성원 등이 매우 다양하고 유연해진다. 그리고 미래의 직업세계는 새롭고 흥미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동시에 기계화와 첨단기술에 의해 기존의 일자리 자체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비교적 합의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미래의 직업세계

학생들이 성장하여 직업세계에 들어갈 때의 직업모습의 다양화와 유연화에 대하여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직업세계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보다 넓은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행의 지평을 넓혀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현재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그것도 매우 제한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래의 직업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형태의 직업세계의 이해 지원은 크게 변화하여야 한다.

2)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앙터프레너십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이 동아리와 같은 팀별 활동, 모의창업 등 실천적, 협동적 활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 인간관계역량, 의사소통역량, 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 등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핵심역량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는 기본역량인 바, 기본역량을 갖추게 되면 어떤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도 후반부터 변화하는 평생학습사회에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개발해나가는 기본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좁은 의미의 진로교육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전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능력은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어떤 변화에도 적용가능한 기본적인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은 국가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고도기술화·정보화, 국제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질이란, 단순히 특정영역의 구체적인 직업기술이 아니라, 기계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 등, ‘인간적인’ 능력이라고 규정되고 있다(Resnick, and Wirth, 1996). 이처럼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그리고 고도화될수록 가장 기본적인 역량들이 더욱 중요해 지게 되고, 진로교육 역시 기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실제 현장 문제 중심으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앙터프레너십교육은 이와 같은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으로서도 매우 효과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한국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 학교교육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국학생들은 학업성취도면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존경도나 학업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 역시, 학생들에게 있어 과연 학교는 무엇인가? 라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여러 증거

들로 볼 때, 적어도 학생들은 학교는 행복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불행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함양되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장애요인이 된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도한 사교육의존도,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사와 학교, 입시위주로 치닫고 있는 학교, 경쟁을 촉발하는 학교시스템 등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학교나 교육내부의 문제보다는 좋은 일자리나 성공에 대한 치열한 경쟁구조를 갖고 있는 교육바깥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결과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계층이나 집단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육영역내부에서도 학교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학교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문의 학교가 더 많이 개설되어야 하고, 대안교육이나 창의학교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V. 사회적 시사

1. 변화, 창조, 혁신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

청소년들의 직업과 교육에 관한 의식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정성에 대한 추구경향과 학력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안정성 추구는 단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를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들이 안정성 추구는 성인세대의 의식과 문화가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사회는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실패에 대한 관용도가 상당히 낮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은(장홍근 외 2006), 청소년들이 더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창의

적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변화, 성인세대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변화를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의식화의 작업이 필요하다.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 과제가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창의적·대안적 진로개발의 역할 모델 발굴 및 확산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매우 높은 기대수준은 앞으로도 고학력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청년들이 취업하는 현실에서는 학력과잉현상을 흔히 볼 수 있고, 높은 학력이 반드시 자신의 취업이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인식은 앞의 안정성 추구 경향과 마찬가지로,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인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학력 추구는 취업성공여부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학력중시사상의 노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학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들이 학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학력이 아니라도 자신의 삶과 일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창업계획에, 주변이 성공한 창업인이 있는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역할모델은 창업에 대한 동기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창업으로 성공한 젊은 직업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내외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삶과 일, 일-가정 양립적인 조직 문화

전반적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세대는 삶에 있어서 여가를 중시하고, 자아실현이나 적성이

나 흥미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성세대가 숙고해야 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과 직업을 개인생활이나 여가보다 중시하던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직장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세대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득수준 2만불에 근접한 경제적인 수준의 사회이었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삶에서 여가와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같은 내재적 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 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경계하거나 비판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곧, 청소년 세대의 직업에 대한 인식의 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터나 조직에서 기성세대의 인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동 외(2010). 청년기술창업지원 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 외(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외(2010). 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홍근 외(2006). 2006 한국인의 직업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Misug JIN(2010). The future of world of work and creative career development.
2010 Intenational Conference of Korea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주제발표 5

공동체·시민의식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체 · 시민 의식 영역의 미래세대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I. 머리말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적 요인이 개별 국가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경계는 더욱 불일치하고, 인종과 국가의 경계는 더욱 불분명해지며, 경제적 범위 또한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인종적·경제적·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가 기능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운명이 단순히 내적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성에 기반한 국제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가 갖는 중요성은 여전히 건재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별 국가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도 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은 보다 기능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관계망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적 상호의존은 다양한 층위의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 국가 사이에 중층의 차이와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한류 같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혐한류와 같이 서로의 문화를 불신하는 경향이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각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교류와 동시에 서로를 욕하는 용어들이 일상화된 점 등이 그러하다.

이렇게 세계화에 따른 외적 요인의 중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가 현실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한 성원으로서 의식과 세계화된 시민으로의 의식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미래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국가 의식과 시민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책적, 교육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의 현황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의뢰로 수행된 2010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를 통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참조, 최인재 외, 2011).

II.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청소년

1. 공공 의식: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 사이에는 다소 중첩된 부분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은 특정한 집단의 일원이면서 자율성을 지닌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갖는 두 가지 종류의 의식에는 당연히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히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의식은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동시에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 사이에는 구별되는 부분도 있다.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시민 의식은 특정한 국가나 민족과 상관없이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시민 의식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을 도모하는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시민 의식은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은 표면적으로 다소 대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는 세계화라는 흐름에 볼 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국가는 중요한 행위자이고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강해짐에 따라 그 국가와 민족은 현실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현실적인 경쟁의 단위뿐만 아니라 협력의 단위도 국가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둘러싼 특수성이 갖는 의미는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계 금융시장의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국가적인 정치, 경제, 사회 협력체와 공동체인 EU에 대한 기대감과 개별국가를 초월한 지역공동체의 확대는 개별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협력 노력과 정책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

요한 단위는 바로 국가이었다. 따라서 개별 국가 내에서 노력이나 집단관계가 개별 국가의 운명을 기본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인 지역공동체의 약화라는 전망까지 낳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 역시 다소 성급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분간 현실 세계에서 보편성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특수성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2. 청소년과 세대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을 청소년과 관련하여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전체 세대 문제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대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이다. 서구의 세대에 비해 한국 사회의 세대의 폭이 좁은 것은 그만큼 압축 성장이라고 할 만큼 한국 사회의 변화가 짧은 동안에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몇 년 동안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원인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즉 경향의 변화가 연령효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코호트 효과로부터 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많은 경우 청소년이 특정한 정치·사회적으로 성향을 띠고 단정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신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 특히 진보적인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키워왔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현실보다는 미래에 구현될 새로운 체제에 주목한다. 진보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혁명이나 개혁 같은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 역사적으로 진보주의는 민족주의 운동, 자유주의 운동 혹은 사회주의 운동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갖는 역동성 혹은 불안정성을 진보주의와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극우적인 사회운동에서 많은 청소년을 포함한 신세대가 호응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의식의 변화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의사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청소년이 각종 IT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 획득 방식이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집단지성의 형태로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우 제한된 공간과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획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격한 의견의 쏠림이 일어날 위험성이 크다. 게다가 그 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청소년의 의식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III.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 현황

다음은 2010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의 분석결과 중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의식의 현황을 보여주는 여러 조사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국가별 차이와 시간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를 중국과 일본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그러한 국가비교가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한국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1.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한국이라는 국가 혹은 사회, 그리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갖는 공통된 소속감과 관련이 깊다. 같은 국민, 같은 민족과의 강한 연대감과 유대감 그리고 소속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희생정신, 애국심, 국민적·민족적 자부심 3개 영역을 포함하였다. 첫째, 희생정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가 속한 집단 이익을 위해 개인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한국 청소년은 60.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중국(82.5%)보다 낮고 일본(43.4%)보다 높다.

그리고 국가가 위급한 상황일 때 무엇이든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청소년의 48.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83.7%와 일본의 긍정 응답률 23.9% 중간에 해당한다.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국 청소년의 긍정 응답률이 95.2%, 한국 청소년의 긍정 응답률은 83.2%, 일본 청소년의 긍정 응답률은 68.9%로 각각 나타난다.

둘째, 애국심에 관한 응답 결과도 공동체 의식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청소년의 긍정 응답 비율은 72.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중국 청소년 (84.1%)의 긍정 응답 비율보다 낮다. 아울러 이 응답 비율은 일본 청소년(46.2%)의 긍정 응답 비율보다는 높다. 한편 자기 국가의 경제 성장의 지속성에 관해서는 중국-한국-일본 순서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중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률(95.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 청소년(81.7%), 일본 청소년

(43.2%)의 순서로 긍정적 응답률을 나타냈다.

셋째, 국민적, 민족적 자부심은 앞서의 영역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른 영역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대체로 중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 비율과 일본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 비율 사이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민족적 자부심 영역에서 응답 결과는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 국가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이는 국가의 청소년은 일본 청소년이다. 일본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률은 89.7%에 달한다. 중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률은 86.0%인 반면에 한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률은 74.4%로 나타났다. 국민적 자긍심 중국-한국-일본 순서로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역시 중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률(96.2%)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률(78.3%), 일본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률(73.3%) 순으로 나타났다.

2. 시민 의식

앞서 언급한대로 공동체 의식은 국가, 민족, 사회에 관한 내적, 특수적인 것이다. 반면에 시민 의식은 공동체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 의식은 한 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서 책임과 권리와 동시에 국제적인 의미에서 보편성을 공유하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시민 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는 참여 의식,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다문화의식, 사회 구성원으로서 애타심을 검토하였다.

첫째, 참여 의식은 크게 정치와 사회참여 관심도와 참여의사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정치와 사회참여 관심도는 대체로 중국과 일본 청소년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사회적 쟁점이나 정치문제의 관심도에 관해서 중국 청소년의 관심도가 67.7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57.7점, 일본은 51.8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견을 표현하겠다는 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54.6%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참고로 2008년 53.8%였고 2007년도는 44.8%이었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다른 여러 항목과 마찬가지로 중국 청소년의 참여의사 정도가 가장 높았다. 중국 청소년의 참여의사 정도는 74.9%로 나타났고, 일본 청소년의 참여의사 정도는 31.7%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의식은 다문화사회 인지도와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태도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

다. 다문화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을 보면, 한국이 9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본(54.9%), 중국(4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용어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다문화사회 관련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문화 사회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78.4%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87.2%,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느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63.2%로, 다문화청소년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비율(86.3%)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일반적인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비율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타심은 타인에 대한 배려 문항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길거리에서 위험시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응답은 51.6%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 비율(67.0%)보다 낮고, 일본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 비율(41.9%)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한편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를 원조 문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85.8%에 달하였다. 이 수치는 2008년에 비해서도 14.7%가 증가한 것이다.

IV. 시사점과 함의

1. 사회적 시사점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과반수를 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과 태도가 연도별로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 힘들다. 일정 수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 애국심, 국민적,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점에서 살펴본 공동체 의식은 한국 청소년이 갖는 국민, 민족과의 강한 연대감과 유대감 그리고 소속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 같은 요소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비교를 할 때, 이러한 의식과 태도는 중국과 일본 청소년의 중간에 해당한다. 중국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놓고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중국 청소년과 일본 청소년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측면이 크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치제도의 차이이다. 세 나라 모두 공공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유교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제도의 차이도 크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우는 적어도 정치체제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국가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사회체제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낮은 공동체 의식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질적인 측면이다. 21세기에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은 결코 맹목적인 집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동체 의식이 사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자연스럽게 소속 집단에 대한 헌신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맹목적인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은 아니다. 공동체라는 공공부문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황 하에서 지향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면 한국 청소년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의 수준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대로 결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수준과 구체적인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 같은 국민과 민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한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동체 의식은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에 비해 높지 않다. 막연한 공동체 의식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개 공적인 행동에 관한 의사에서 나타난 한국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유대감과 소속감 같은 것은 주로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행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서적인 측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국 청소년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은 구체적인 행동과 다소 괴리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 청소년의 시민 의식도 국제비교를 해보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수치는 대체로 공동체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치나 사회참여 관심도, 정치 문제 의견 표명 의사가 50%대에

머물렀다. 다른 사회 구성원을 돕겠다는 의사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포용성도 크게 높지 않다. 다만 특이한 것은 어려운 나라를 돕겠다는 문항에서는 80% 후반대의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시민 의식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낮다. 공동체 의식에서 보여준 높은 긍정적 응답비율을 대부분 문항에서 찾기 힘들다. 게다가 시민 의식의 구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질적인 수준도 높다고 보기 힘들다. 다문화가족을 인정하고 이들 가족의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성친구로 받아들이는 문제에서는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다른 구성원을 돕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80% 후반대로 높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회구성원을 돕겠다는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만큼 막연한 관점에서는 보편성을 갖는 시민 의식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시민 의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 의식도 하나의 태도이고 의식이다. 이것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측정하거나 자료로 수집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의사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두 가지 의식과 태도, 즉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을 같이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다소 드러난다. 한국 청소년의 시민 의식이 공동체 의식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가져야 할 공공의식 중 보다 특수적이고 내적 측면이 보편적인 측면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권리, 그리고 국제적인 보편성을 의미하는 시민 의식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유대감, 소속감에 비해 그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 의식의 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 낮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낮다. 특히 그 실행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시민 의식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추상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시민 의식의 수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어쩌면 한국 청소년이 갖고 있는 시민 의식 수준이 실제로는 더 낮을 수도 있다.

셋째,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의 차이는 결국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이라는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와 의식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내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에 대한 유대감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인 시민 의식에 기반해야 한다. 보편성을 결여하고 맹목적인 공동체 의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체로서 집단이 갖는 응집성은 개별 구성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할

때 큰 힘을 발휘하고 그 방향성도 올바르다. 우리는 역사에서 제어되지 않는 단순한 공동체 의식이 어떠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잘 보아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시민 의식 교육이 상대적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경우에는 최근 달라진 가정과 학교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되어 왔다. 개인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주의 학교와 사회에서는 집단주의의 공고한 흐름이 있다. 아마 이러한 가정, 학교, 사회의 특징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제도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선거제도의 변화,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 언론의 자유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적어도 제도적 수준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확산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충분한가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회에는 법률과 제도로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그 실질적 운영과 기능은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요소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구체적인 실질적 운영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도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개별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기 보다는 비민주적인 원리가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청소년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은 이러한 차이, 단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권리의식, 마이너리티에 대한 포용, 보편적인 인류애 등 시민 의식이 공동체 의식만큼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의식이 일종의 균형을 잡고 서로에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다.

2. 교육과 정책적 시사점

우리가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에 관심을 두는 것은 청소년이 공공 부문에 갖는 공적 태도와 공공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가, 민족, 사회 같은 공동체는 성원들 사이에 유대감과 동시에 헌신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유대감과 헌신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즉 개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다. ‘건전한’ 공적 태도와 공공 의식을 포함한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조한상, 2009).

그런데 이러한 공적 태도와 공공의식은 구체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예전에 사회통합은 사회적 배제가 극복된 상태를 가리키거나 사회가 다양한 개인을 수용하는 상태(integration)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용하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 충족이 가능한 상태(inclusion)’를 의미한다(노대명, 2009).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전한 공적 태도와 공공 의식을 갖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회, 소통, 신뢰,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이정아 외, 2009). 그런데 이들 요소는 같은 수준에서 놓고 보기는 힘들다.

첫째, 기회는 환경적인 측면이 크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공해야 하는 구분이 다. 즉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활용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 창출을 통해 취약한 계층에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 국가, 민족,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 개별 청소년 미래 사회 성원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둘째, 신뢰와 세 번째인 요소인 소통은 통합된 상황 자체로 볼 수 있다. 즉 신뢰가 높은 상태와 소통이 잘되는 사회가 사회통합이 높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는 정책적 측면이 중요하다. 신뢰를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각종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업무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민 소통 수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패를 줄이고 정부 정책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성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마지막 요소인 협업은 앞서 요소보다 교육적인 측면이 크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소통이 원활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적인 측면의 요소가 강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신뢰를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은 일종의 행위적인 측면으로 개인이 만나서 연계를 하여 성과와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은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협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들 사이에 신뢰가 증가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협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전체적인 교육체계에서 협업의 가치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추세는 경쟁의 확산과 세계화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와의 협업과 협력이 더 필요한 추세이다.

물론 최근에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교과 내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취가 우선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교육 방향은 정보통신기술발달 같은 최근의 흐름과 결합되어 보다 내집단의 강한 응집력과 배타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이나 각종 소셜 미디어는 공론장으로 잠재력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경쟁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 환경을 들 수 있다. 각종 학교에서 공간 배치도 이러한 일방적인 내용 전달과 개인의 성취의 중요도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협업을 통한 성취가 보다 더 강조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인 행위에서 협업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협업을 하는 각종 사회적 능력도 개별적 성취만큼 중요시 한다면 청소년 사이에서도 협업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은 장기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종 정보통신 기술도 오히려 이러한 협업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현장에서 학제적 연구처럼 학제적 교육을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학교,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협업도 바로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우리 교육에서 보다 시민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보편성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도 협업을 강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두 가지 종류의 공공 의식과 태도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특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은 집단주의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이 대체로 강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 사회와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성만을 강조하는 시민 의식은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현실에서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위험이 있다. 특수성과 보편성이 서로를 견제하고 조화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공적인 의식과 태도가 형성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아 · 정지선 · 박선주 · 노대명. 2009. 「21세기형 사회통합 실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IT & Future Strategy 제6호, 2009.
- 조한상. 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 「2010 청소년가치관 국제 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